

정책연구 2017-00

# 세종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The current state and support policies of single-parent  
families in sejong Area

류유선 · 박민정

**연구책임**

• 류유선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민정 / 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

정책연구 2017-00

## 세종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인 박재묵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00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 중부인쇄기획 TEL 042-253-7537 FAX 042-253-753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세종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으로 함.

### ■ 연구 방법

- 한부모가족 문헌 연구 및 세종 지역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사업 및 정책 분석
- 2015,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 원자료 통계 재분석을 통한 세종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파악
- 세종지역 한부모여성 15명의 심층면접
- 전문가 콜로키움과 자문을 통한 정책 제언

### ■ 심층면접 결과

- 면접참여자는 미혼모 2명, 사별 3명, 이혼 10명임.
- 한부모여성 대부분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만성피로와 질병을 경험하고 있음.
- 이혼과정에서 가정폭력과 빚 등으로 물질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한부모여성들 대부분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음.
-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와 형제자매 등, 원가족과의 관계도 해체되면서 정서적 안전망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 한부모여성 가운데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다른 한부모 여성과 비교해 심리적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혹은 자녀 양육에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었음. 반대로 친정부모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의 한부모여성들은 심리적·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았음.
- 면접에 참여한 한부모여성 대부분은 저숙련노동분야에 근무하고 있음.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간호조무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나머지 면접자들은 식당 아르바이트, 마트 계산원 및 요양보호사 등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음.
- 이혼이나 미혼모로 한부모가 된 여성들은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주거방식은 3명이 대출금이 있는 자기집, 7명이 월세, 나머지 5명은 친정부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
- 월세로 거주하는 한부모여성의 경우, 주거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컸음.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괜찮은 거주지에 대한 욕구와 그 거주시설과 거주지 주변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특히 최근 아동 및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거리 안전 및 일하는 동안 집에 혼자 있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컸음.
- 한부모여성 가운데 2명은 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었음.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임금노동을 하는 이들 여성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음.
- 한부모여성들은 자녀 교육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따라서 사교육비와 보험에 임금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있었음.
- 한부모여성들은 이성애 핵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음.

## ■ 정책제언

- 한부모여성 및 자녀에 대한 정기 건강정기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필요.
- 한부모여성 대다수가 경험하는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 한부모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급자 대상 및 지원방식의 개선 필요
- 안정적 직업을 위한 장기 직업교육 및 훈련 필요
-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한부모여성과 자녀들의 상황과 욕구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필요
- 한부모여성의 상황에 맞는 육아지원 및 자녀의 성장에 따른 시기별 자녀교육 및 부모교육 필요.
-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향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 한부모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인식 교육



# 차 례

1장 서론 .....	3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절. 연구내용과 방법 .....	7
2장 한부모가족에 대한 논의 .....	13
1절. 가족연구에서 여성주의 관점 .....	13
2절. 다양한 가족 .....	15
3절. 한부모 가족 .....	17
4절. 한부모 여성 가족 .....	21
3장 세종지역 한부모가족 특성 .....	29
1절. 세종시 사회조사 재분석: 한부모여성 .....	29
1. 세종시 사회조사 요약: 한부모여성 .....	30
2. 2015년 한부모여성 생활실태 .....	37
3. 2016년 한부모여성 생활실태 .....	49
2절. 세종지역 한부모가족 현황 .....	60
1. 세종지역의 한부모 현황 .....	60
4장 세종지역 한부모여성 심층면접 .....	69
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	69
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	73
5장 정책제언 .....	113
참고문헌 .....	120

## 표 차례

[표 1-1] 한부모 및 조부모 가구 .....	5
[표 1-2] 심층면접 참여자 .....	8
[표 2-1] 보편적 가족구조 .....	17
[표 2-2] 여성가구주 .....	21
[표 2-3] 한부모가구 빈곤율 .....	22
[표 3-1]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연령 .....	30
[표 3-2]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정도 .....	30
[표 3-3]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형태 .....	31
[표 3-4]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점유형태 .....	32
[표 3-5] 배우자 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	32
[표 3-6] 배우자 유무에 따른 비경제활동 이유 .....	33
[표 3-7] 배우자 유무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	34
[표 3-8] 배우자 유무에 따른 월평균 저축액 .....	35
[표 3-9]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지 선택 이유 .....	36
[표 3-10]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연령 .....	37
[표 3-11]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정도 .....	38
[표 3-12]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형태 .....	39
[표 3-13]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점유형태 .....	39
[표 3-14] 배우자 유무에 따른 가족 관계 만족도 .....	40
[표 3-15] 배우자 유무에 따른 1주간 경제활동 상태 .....	42
[표 3-16] 배우자 유무에 따른 비경제활동 이유 .....	42
[표 3-17] 배우자 유무에 따른 종사상 지위 .....	43
[표 3-18] 배우자 유무에 따른 임금근로자 .....	43
[표 3-19] 배우자 유무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	44



[표 3-20] 배우자 유무에 따른 월평균 저축액 .....	45
[표 3-21] 배우자 유무에 따른 현 거주지 선택 .....	46
[표 3-22]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성의 삶의 질 .....	47
[표 3-23] 배우자 유무에 따른 마을공동체 참여의향 .....	47
[표 3-24]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정서경험 .....	48
[표 3-25]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연령 .....	49
[표 3-26]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정도 .....	50
[표 3-27]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형태 .....	51
[표 3-28]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점유형태 .....	52
[표 3-29] 배우자 유무에 따른 경제활동 .....	53
[표 3-30] 배우자 유무에 따른 비경제활동 이유 .....	53
[표 3-31] 배우자 유무에 따른 경제적 상황 .....	54
[표 3-32] 배우자 유무에 따른 월평균 저축액 .....	55
[표 3-33]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구직활동 .....	55
[표 3-34] 배우자 유무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 .....	56
[표 3-35] 배우자 유무에 따른 현 거주지 선택이유 .....	57
[표 3-36]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성의 삶의 질 .....	58
[표 3-37]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1순위 .....	59
[표 3-38] 세종시 가구수 현황 .....	60
[표 3-39] 세종시 여성가구주 현황 .....	61
[표 3-40] 세종시 읍면종별 한부모 현황 .....	62
[표 3-41] 세종시 독거노인 현황 .....	63
[표 3-42] 전국 한부모가구 추계 .....	64
[표 3-43] 세종시 한부모가구 추계 .....	64
[표 3-44] 2016년 세종시 한부모가구 현황 .....	65
[표 3-45]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대상 .....	65
[표 4-1] 심층면접 참여자 .....	71

## 그림 차례

[그림 1-1] 심층면접 참여자 읍면동 분포도 .....	9
[그림 3-1]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 .....	38
[그림 3-2]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점유 형태의 차이 .....	40
[그림 3-3]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 .....	50
[그림 3-4]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택형태의 차이 .....	51

# 1장

## 서론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1장 서론

##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세종시의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세종지역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 사별 9,936명과 이혼 5,063명으로 총 14,999명으로, 이는 15세 이상인구 160,337명의 9.35%에 해당한다. 2005년 세종시 15세 이상 인구 66,926명 가운데 사별 6,646명, 이혼 1,476명 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 사이에 사별은 1.4배, 이혼은 3.4배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사별과 이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가구주의 수도 증가하는데, 2005년 6,264였던 여성가구주수는 2015년 21,522로 3.4배 증가했고, 가구주 비율로 살펴보면, 전체가구주 대비 22.10%였던 여성가구주비율은 2015년 28.61%로 거의 30%에 달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가족에 대한 연구는 빈곤과 여성, 자녀교육과 양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로 이어진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낮다는 것이 연구들의 일반적 결과다(서울여성가족재단, 2004;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2, 2014). 특히 한부모여성가구주의 경우, 한부모가 됨과 동시에 저소득층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이현심·한규철·전기복, 2013<sup>1)</sup>).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2.5%,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 54.0%, 200만원이상이 33.5%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이 우려

---

1) 이현심·한규철·전기복(2013), 한부모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제3호, 174-183.

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sup>2)</sup>).

한편,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이성애 핵가족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라는 정상가족의 타자로서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기도 한다(박현정·이기연, 2015<sup>3)</sup>).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다양한 가족형태 가운데 하나라는 사회적 다원성의 차원과 가족형태의 변화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 가족의 빈곤이라는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2011년 84,710명에 머무르던 세종시의 인구는 2012년 급속하게 115,338명으로 증가, 2015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측면과 17개 시·도 가운데 젊은 층의 인구비율이 높다라는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타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혼인비율이 높아지면서(2016년 세종시의 혼인건수는 1,612건으로 2015년 대비 7.6%가 증가했음. 세종시와 함께 유일하게 증가한 제주의 비율이 0.8%로 혼인건수의 증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높음. 2016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2017년 3월 22일자), 세종시 인적자원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이혼이나 사별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한부모 가구는 전국 한부모가구의 비율(10.54%)에 비하면 8.33%로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전국 한부모가구수가 2015년 2,103,476가구에서 2016년 2,041,856가구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세종시의 한부모 가구는 6,814가구에서 7,528가구으로 1년 동안 10%(714명)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시 한부모 가구의 증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미혼자녀가구는 70.81%에서 70.46%로, 조부모+미혼손자녀가구는 2.41%에서 2.06%로 감소하였으나, 부+미혼자녀가구는 26.78%에서 27.48%로 증가하였다. 특히, 세종시 한부모 가구의 구성에서 모+미혼자녀가구(70.46%)와 조부모+미혼손자녀가구(2.06%)는 전국 한부모 가구에 비

---

2) 여성가족부(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3) 박현정·이기연(2015), 저소득 한부모 자녀의 삶과 발달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 연구논총, 제31권 제2호, 105-139.

해서 낮은 수치였으나, 부+미혼자녀가구의 경우, 전국 25.34%에 비해 27.48%로 2.1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부+미혼자녀가구가 2015년 25.56%에서 2016년 25.34%에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세종시의 한부모가구의 증가에 있어 부+미혼자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한부모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모+미혼자녀가구, 즉 한부모 여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후속연구를 통해서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세종시의 부+미혼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부모여성과는 다른 유형의 문제점들과 정책적 요구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1-1] 한부모 및 조부모 가구

(단위: 가구)

구 분	전국 가구수		세종 가구수	
	2015	2016	2015	2016
부+미혼자녀가구	537,608	517,354	1,825	2,069
모+미혼자녀가구	1,522,554	1,481,683	4,825	5,304
조부모+미혼 손자녀가구	43,314	42,819	164	155
한부모 총 가구수	2,103,476	2,041,856	6,814	7,528
일반가구수	19,111,030	19,367,696	75,219	90,413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6년 인구총조사

또한 세종시는 일반가구수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해체로 인한 자녀 돌봄 및 양육과 교육에서의 질적·양적 측면에서의 결핍,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위축과 고립 등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국가와 사회의 정책은 파편적이고(서울여성가족재단, 2010), 한부모가족, 특히 여성 한부모의 이해와 필요를 담아내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남성생계부양자/여성전업주부라는 성별분업 의식이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여성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이자 전업주부라는 이중의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처지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여성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자립기반과 함께 돌봄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편견 등 다차원적으로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종지역 한부모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발굴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세종지역의 한부모가족의 발생원인과 구성원 등 구조와 형태를 파악하고, 구성원들의 경험과 의견을 통해 현실적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여성 한부모가족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여건조성의 기초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2절. 연구내용과 방법

### 1. 문헌연구

- 한부모가족 관련 연구보고서, 서적, 논문 등 분석
- 세종 지역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사업 및 정책 분석

### 2. 기존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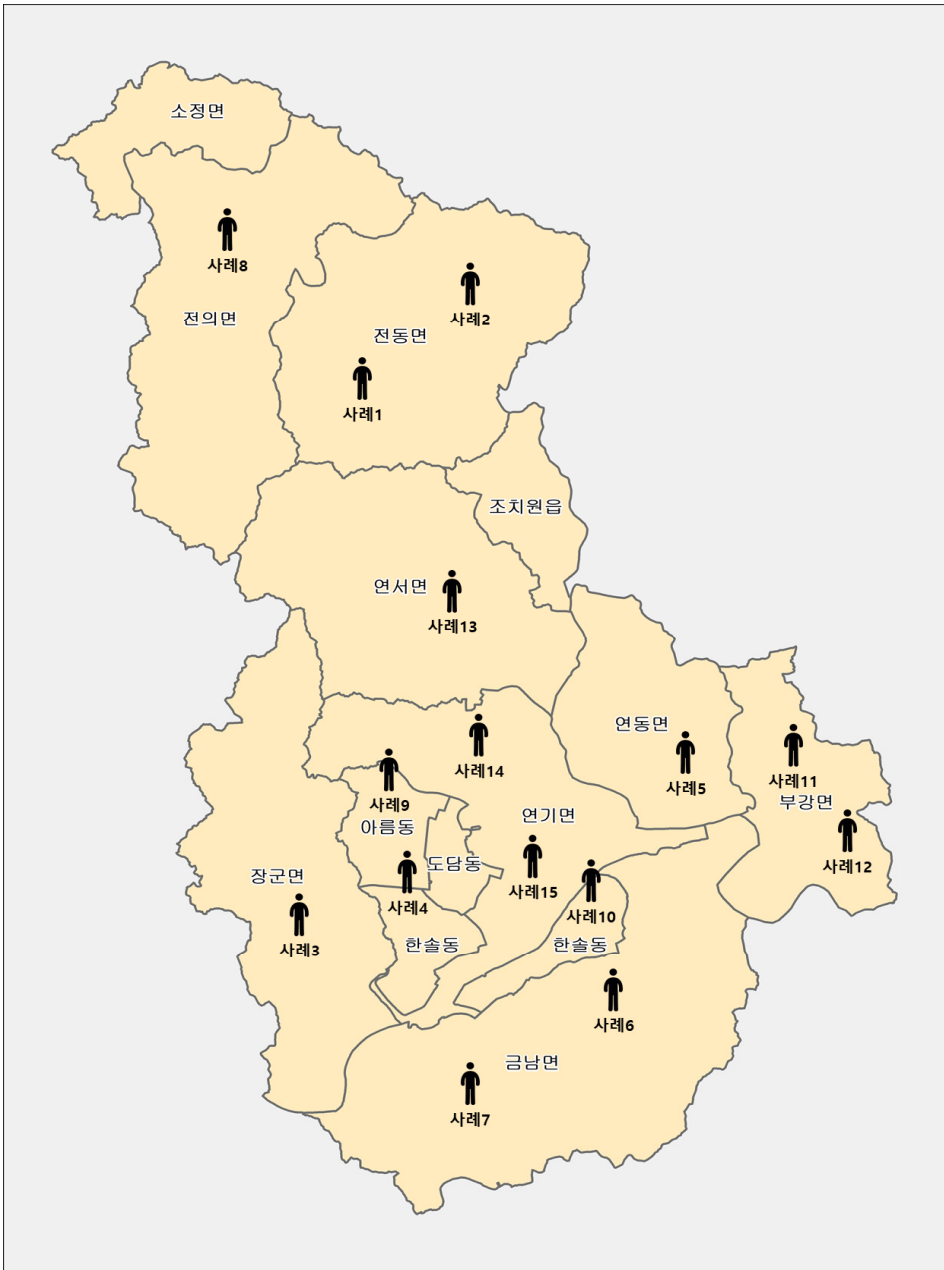
- 세종시 사회조사  
세종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의식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해 시행하고 있는 세종시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세종지역 한부모라는 연구의 주제와 맞추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사회조사 표본 가운데 ‘배우자 없음’ 으로 필터링한 데이터(2015년 166명, 2016년 188명) 가운데 유의미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3. 세종지역 한부모여성 심층면접

- 심층면접 참여자 모집: 면접 참여자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부모여성으로, 세종시로부터 각 읍면동에서 2명씩 면접에 참여를 희망하는 20명의 명단을 받았다. 심층면접을 위한 연락과정에서 최종 15명이 인터뷰에 참여했고, 나머지 5명은 심리적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면접을 포기하였다.
- 심층면접 참여자에 대한 요청은 5월에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6월말에 심층면접자 명단이 내려와 2017년 7월과 8월, 2달 동안 심층면접을 수행했다.
- 심층면접 참여자 개요

[표 1-2] 심층면접 참여자

심층 면접자	거주 지역	연령	한부모 이유	자녀	직업
사례1	전동면	40	이혼	딸2, 아들1	낮 식당, 저녁 치킨배달(알바)
사례2	전동면	45	이혼	아들 2	낮 보육교사, 저녁 식당(알바)
사례3	장군면	55	사별	아들 2	식당(알바)
사례4	중촌동	39	이혼	딸1, 아들1	공공근로
사례5	연동면	50	사별	딸1	식당(시간제)
사례6	금남면	39	이혼	딸3	가정집 청소(시간제)
사례7	금남면	36	미혼모	아들1	바리스타(구직 중)
사례8	전의면	43	이혼	딸1	마트(시간제)
사례9	아름동	49	이혼	아들 1	장애인활동보조 및 식당(알바)
사례10	한솔동	35	미혼모	아들 1	간호조무사
사례11	부강면	54	사별	아들 2	장애인 일자리
사례12	부강면	43	이혼	딸1, 아들1	구직중
사례13	연서면	46	이혼	딸1, 아들1	사회적 기업
사례14	연기면	45	사별	딸1, 아들1	아르바이트
사례15	연기면	43	이혼	딸1, 아들1	요양보호사



[그림 1-1] 심층면접 참여자 읍면동 분포도

- 심층면접은 면접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이뤄졌고, 면접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터뷰 녹음을 실시하였으며, 후에 녹취하여 내용을 분석했다.
- 면접내용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한부모가족이 된 시점과 이유
  - 2) 가구구성: 현재 거주지, 동거인
  - 3) 경제: 직업, 급여
  - 4) 가족관계: 자녀 및 부모, 형제 관계,
  - 5) 자녀양육 및 교육 방식, 어려움
  - 6)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 7) 국가, 지역정부, 교육청, 지역사회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항
  - 8) 지원이 필요한 부분 및 원하는 정책
- 전문가 콜로키움 및 자문
 

한부모가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종지역 한부모여성의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콜로키움과 자문을 실시하여, 과제 발굴 및 정책제언에 참조하였다.

## 2장

### 한부모 가족에 대한 논의

- 1절. 가족연구에서 여성주의 관점
- 2절. 다양한 가족
- 3절. 한부모 가족
- 4절. 한부모 여성 가족



## 2장 한부모가족에 대한 논의

### 1절. 가족연구에서 여성주의 관점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는 이성애 부부와 자녀라는 핵가족으로 정형화되어 왔다. 이런 전형적인 가족에서 남성아버지는 생계부양자로 여성어머니는 가사와 양육 및 돌봄의 주체인 전업주부로 역할 지어졌다(이박혜경, 2012<sup>4)</sup>). 성별분업, 친밀성과 유대라는 복잡한 관계가 가족형성과 유지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과 기능 혹은 형태와 경험은 “사회적 계급계층에 따라, 사회와 문화에 따라, 인종과 민족에 따라” 그리고 가족구성원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여성주의는 주장한다(이박혜경, 2012:179).

가족구성원은 비슷한 경제·문화적 조건에서 동일한 자원을 공유하고 유사한 삶의 기회를 갖는다는 가족개념은 가족구성원인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의 생활세계와 생애기획이 그렇지 않게 경험되고 있다, 즉 가족 내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family’ 보다는 ‘가족들families’ 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양식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으며, 친밀한 결사체(intimate association)로 불리기도 한다(데이비드 모건, 2012; 이박혜경, 2012). 따라서 가족은 이렇다 혹은 이래야한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정하기 보다는 최근에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족”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Cheal, 1991; 이박혜경, 2012:180 재인용).

다양한 가족,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 가족 혹은 정상가족이라는 이념에 대한 도전이며, 정상가족 이외의 방식으로 결합하고 유지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배제적 관점의 전환이다. 우리 사회

---

4) 이박혜경(2012), 7장 애정과 투쟁의 장소로서의 가족, 이재경외(2012), 여성학

에 공고한 한부모가족, 미혼모와 부, 조손가족 등에 대한 동정적 시선 혹은 비정상 가족이라는 차별에 대한 자각이기도 하다.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생애과정을 경험한다는 가족이 아니라 유연화된 사회에서 각각의 가족구성원이 각자의 기획에 따라 노동과 교육을 위해 이동하는 현상을 울리히 벡(2006)은 가족 내 개인화로 보고, 이를 위험사회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분석한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가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새로운 가족 이데올로기의 징후로 보여진다. 시민들의 요구나 행위로써 나타나는 가족의 사회현실을 사소화할 경우, 가족의 변화는 가족위기나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문제로 분석된다. 나아가 가족의 변화가 사회갈등과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하는데, 이런 관점은 경제적 불평등과 성, 계급, 그리고 인종 등 차별이 가족해체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과 대립된다(Collins, Jordan, and Coleman, 2001<sup>5)</sup>). 특히 가족중심성이 강한 한국사회의 경우, “개인의 발전과 가족간 정서적 관계가 공존하는 정서적 합리주의와 같은 새로운 가족 이데올로기” 로써 신가족주의가 새로운 가족이데올로기로 주장되기도 한다(양옥경, 2006: 11<sup>6)</sup>).

이런 맥락에서 친밀성의 가족보다는 독립적인 가구라는 용어가 선호되기도 한다(데이비드 모건, 2012). 가구(household)는 “사회적 단위로써 장기간 효과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개인적, 집합적 재생산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곳으로부터 수입을 끌어오는” 것이고, 가구화(householding)는 “수입을 끌어들이고, 가구 내 일을 배분하고 집합적 결정을 내리는 다층적 과정” 으로 기존 가족 개념을 확장한다(Wallerstein and Smith, 1992: 13). 가족이 혈연과 친밀성을 내세우면서, 가족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출산과 가사노동, 돌봄과 양육을 가족구성원 가운데 특정한 성, 여성에게 무급노동을 전가한다면, 가구는 “임금노동에 따른 급여 및 다양한 네트워크, 지식과 정보, 그리고 시간과 감정적 돌봄” 등 가족내 다양한 관

---

5) Collins, Jordan, and Coleman(2007),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역자, 가족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6) 양옥경(2006), 가족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계를 포함한다(류유선, 2015: 317).

따라서 가족연구에서 가족을 가구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가족에서 보이지 않았던 여성의 노동과 기여를 가시화하고, 젠더와 계급, 시간과 공간으로 분석범주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데이비드 모건, 2012).

## 2절.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 배경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가족구조의 축소 및 분화, 성역할의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가 가족의 질적 및 기능적 변화의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김승권, 2004:136).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가족의 변화는 “근대적 핵가족의 위기적 징후”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성에 부부와 미성년자녀라는 정상가족, 핵가족 모델은 남성생계부양자와 여성전업주부라는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지속되었으나, 여성의 경제참여확대 등 다양한 이유로 기존 가족모델의 해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족의 위기나 가족의 해체는 가족의 재구조화라는 장을 만들기도 한다(변수정, 2016:228).

즉 이성애핵가족, 정상가족과 다른 형태의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부가정, 재혼가정, 독신가정, 노인가정, 무자녀가정, 장애인가정, 입양가정, 다문화가정, 비혈연가정, 동성애 가정 등”이 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박영신, 2014: 99). 국가 간 시공간적 거리가 축소되면서 세계가족, 초국적 가족, 기러기가족, 별거가족 등이 글로벌 세계의

---

7) 류유선(2015), “가구화과정에서 나타난 미등록이주여성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8) 변수정(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비혼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박영신(2014),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지원 사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가족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은 형태나 결합방식, 기능과 역할, 법과 제도, 거주형식과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불릴 수 있다. 사회변동에 수반되는 가족 결합방식, 구조와 형태, 그리고 제도의 변화는 ‘가족’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다.

사회의 기본단위로 인식되는 가족의 변화는 법과 제도로 현실화되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민법은 가족을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했다. 가족의 범주를 다루던 민법 제779조는 호주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호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된 자이다. 즉,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결혼, 혈연, 입양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가족을 정의했다(김승권, 2004: 81<sup>10</sup>). 그러나 2005년 민법은 “중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개정되어, 지금의 법으로 변화했다. 현재 민법 제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혈연과 법에 의해 형성된 단위로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즉 가족은 결혼이나 출산, 입양이라는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동적인 실체이자 과정이다. 즉 각 개인의 생애 과정이 변화하듯이 가족의 구성과 형태도 변화가 수반된다(데이비드 모건, 2012<sup>11</sup>).

따라서 이혼이나 별거의 증가, 1인 가구 및 비혼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은 남녀의 친밀한 결합과 그로 인한 자녀의 출생을 기반으로 경제를 공유하는 영구적 사회기본 단위라는 인식, 혹은 누구나 가족을 형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습에 변화를 요구한다.

---

10) 김승권(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데이비드 모건(2012), 가족의 탐구, 안호용 옮김

○ 가족의 범주

[표 2-1] 보편적 가족구조

주가족 (Family of Orientation)	-보통 원가족이라고 불리는 가족으로, 개인이 출생한 혹은 성장한 가족을 말함 -개인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주가족에서 성장할 수도 있음. 입양아동의 경우 생모의 가족과 입양부모의 가족 모두 주가족이 될수있음
생식가족 (Family of Procreation)	-생식에 의한 가족은 본인이나 국가의 재가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녀를 갖는 부부임 -생식가족에서 부부는 이성 혹은 동성일 수 있으며, 생식은 이성간의 성관계 혹은 인공수정이나 대리모와 같은 보조적인 생식기술을 통해 형성됨
확대가족 (Extended Family)	-둘 혹은 그 이상의 가족단위를 포함함 -주로 3대(조부모-부모-자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 확대가족인데, 이모, 삼촌, 사촌도 확대가족에 포함됨
혼합가족 (Blended Family)	-혼합가족 혹은 재혼가족은 이전 결혼관계에서 생긴 최소 한명의 자녀와 함께 사는 두 사람으로 구성됨
입양가족 (Adoptive family)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키우려는 법적인 위임을 말함
위탁가족 (Foster Family)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함
한부모가족 (Single Parent Family)	-배우자의 죽음, 이혼, 유기 혹은 결혼을 하지 않는 등의 결과로 한부모가 되는데, 한쪽 부모와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아동으로 구성됨

(자료: Collins, Jordan, and Coleman, 가족복지실천론 , 2007: 55-56 재구성)

### 3절.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혹은 가정은 “한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가족”, 한부모여성은 “보호를 요하는 자녀와 어머니만 살고 있는 경우” 로 정의된다(이정빈, 2013: 500<sup>12)</sup>).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증가해왔다. 초기의 연구들은 양부모가족

과 비교해 문제가족으로 보는 관점이 많았지만, 2007년 ‘편부모’ 라는 표현이 ‘한부모’ 로 수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 관점도 수정되고 있다 (이정빈, 2013).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아동의 60%이상이 18세쯤에 편부모 (single-parent)가정에서 최소한 아동기의 일부” 를 보내며 편부모의 대다수는 여성, 자녀가 있는 가족 가운데 25% 가량이 편부모 가구로 조사되고 있다(Collins, Jordan, and Coleman, 2007: 54)<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족의 외부라는 편견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은 하층계급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진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물리적, 시간적 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정서적인 고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취약 및 위기 가족에서도 자주 논의된다(양옥경, 2006:92).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에서 시작되었다.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유기, 경제능력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장 가구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자가정’ 의 생계와 교육, 주거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부자가정 및 외국인한부모가정, 조손가족 등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면서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비정형가족으로써 한부모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는데, “정형 가족은 꾸준히 줄어들고 부부가족과 1인가족 등 비정형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거나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장기간 부재하여 가족이 불안정한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내 성인과 자녀 모두 경제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양옥경, 2006: 117).

---

12) 이정빈(2013), 한부모여성의 부모역할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8권 제4호, 499-532.

13) Collins, Jordan, and Coleman(2007),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역자, 가족 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부모는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 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 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이 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이란 ‘부자가족’ 혹은 ‘모자가족’ 을 의미하며,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 이고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 을 말한다. 또한 아 동은 18세 미만인 자녀를 말하며, 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병역의무 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의미한다.

법이 정의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가운데 제도적으로 명백하게 증명이 가 능한 경우는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별거로 인한 한 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와 미혼부, 청소년가구주 등 다양한 가족 및 가구 형태에 대한 구체적 조례 및 제도가 필요하다.

가족형태 가운데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빈곤층이 될 경우가 많아 중앙정 부와 각 지자체는 법과 조례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부 모 가구주의 취업률은 높은 반면에 취업의 질적 수준이 낮아 근로빈곤 한 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오혜인, 2013). 이들 가족이 경 험하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불안정과 저소득” 으로 분석되는데, 이들 가구의 평균소득은 일반가구에 비해 낮고, 특히 한부모여성가구의는 소득 대비 지출이 높아 경우가 많다(양옥경, 2006:118).

## ○ 한부모 가족 실태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따라 이들 가족에 대한 연구도 증가해 왔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와 이에 따른 지원정책 과 방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012년 최초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 두 번째 수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전국의 모자, 부자가족 2,552명에 대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조

사를 통해 제안된 정책개선안은 보육·교육시설 등 돌봄체계 강화를 통한 이용접근성 제고, 돌봄공백을 메꿀 틈새돌봄 강화, 자녀 성장에 필요한 양육지원, 부모와 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강화,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확대, 양육비 이행제도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접근성 강화,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확대, 고용취약계층 지원, 주거정책 확대, 의료지원 및 정신건강서비스 증진 등이다(여성가족부, 2015<sup>14</sup>).

충남지역의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7개의 지원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의료비, 자녀수학여행경비, 수험생 학습비, 무료버스 이용권 등 생활적인 지원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자가족을 위한 특화지원방안 마련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자조모임 활성화, 부자가족에 대한 성역할 및 자녀양육방식, 여가시간 등에 대한 교육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거점역할을 할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유형별·소득별 한부모가족 실태파악을 제안하고 있다(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4<sup>15</sup>).

이에 앞서 2012년 수행된 [충남 비혼 한부모가족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에서는 이성에 결혼중심사회에서 비혼과 한부모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사업, 복지시설 접근성 확대, 자녀돌봄 및 양육 서비스 지원 확대, 자립지원 등이 필요한 정책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서도 늘어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2010년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한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자녀 양육과 교육지원, 한부모 지원 전달체계 점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서울여성가족재단, 2010<sup>16</sup>).

---

14) 여성가족부(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15)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4), 충청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2), 충청남도 비혼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16) 서울여성가족재단(2010),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4절. 한부모 여성 가족

한부모가족 연구들은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성별분업과 남성생계부양자방식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송미영, 2014, 2015<sup>17)</sup>).

통계청(2016<sup>18)</sup>)에 따르면, 1990년 15.7%였던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2010년 25.7%, 2016년 28.9%로 총 547만8천 가구로 조사됐다. 모든 여성가구주를 한부모가족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성가구주 가운데 사별이 34.0%, 이혼은 18.6%로 여성가구주의 52.6%가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여성가구주

(단위 : 천가구, %)

구분	가구	여성 가구주							남성 가구주	
		비율	소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1990	11,244	1,764	15.7	100.0	20.4	17.8	56.3	5.5	9,480	
2000	14,507	2,683	18.5	100.0	21.4	16.2	51.1	11.2	11,824	
2010	17,359	4,457	25.7	100.0	22.4	23.4	38.1	16.0	12,903	
2016	18,948	5,478	28.9	100.0	22.3	25.1	34.0	18.6	13,470	
연령별	19세이하	77	41	0.8	100.0	98.8	1.1	0.0	0.1	36
	20~29세	1,330	586	10.7	100.0	91.3	7.0	0.0	1.6	744
	30~39세	3,016	717	13.1	100.0	47.5	38.5	0.9	13.0	2,298
	40~49세	4,240	1,020	18.6	100.0	18.9	42.6	6.2	32.3	3,220
	50~59세	4,567	1,119	20.4	100.0	6.9	35.5	22.5	35.1	3,447
	60~69세	3,014	809	14.8	100.0	3.5	20.0	57.4	19.1	2,205
	70세이상	2,705	1,186	21.6	100.0	0.7	5.2	90.9	3.2	1,519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2. 4,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5쪽)

17) 송미영(2015),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추진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8) 통계청(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편, 2015년 남성대비 여성의 월 임금수준은 62.8%로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하다. 즉 여성가구주가 임금노동에 참여한다 치더라도 남성가구주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아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고령일수록,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할수록”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으며(강우진, 2014: 14), 실제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2013년이라는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상태가 15.5%인 반면에, 여성가구주는 39.8%가 빈곤상태로 분석되고 있다(강우진, 2014<sup>19</sup>).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6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한부모(모자)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노혜진, 2012<sup>20</sup>).

**[표 2-3] 한부모가구 빈곤율**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2014년 대비)	
한 부 모 가 구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	시장소득	10.8%	13.2%	22.2%
		가처분소득	7.8%	11.2%	43.6%
	상대적 빈곤율 (중위50% 기준)	시장소득	18.2%	22.8%	25.3%
		가처분소득	17.7%	20.6%	16.4%

주: 농어가 제외 전 가구, 1인 가구 포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보건사회연구원, 「2016 빈곤통계연보」(재인용)

많은 연구에서 이혼한 여성들은 “경제적 부양자를 잃어버린 여성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녀문제, 사회적 낙인,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의 추락을 경험” 하고 남성들은 “일상 생활과 정서적인 안정을 아내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이혼 후 정서 불안, 일상생활 유지와 양육의 어려움” 에 처하게 된다(이재경, 2008: 178<sup>21</sup>). 이런 이

19) 강우진(2014), 한국 빈곤문제의 동태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 노혜진(2012), 빈곤의 여성화 접근방식의 전환, 여성연구, 통권제83호, 241-273.

21)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또하나의문화



유로 다양한 가족형태 가운데 사회의 유지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김영란(2006: 190<sup>22)</sup>)은 여성의 경제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여성 비정규직과 빈곤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허미영, 2006<sup>23)</sup>). 기존의 사회적 위험이 질병이나 산업재해, 노령과 실업처럼 노동력상실과 연관이 되었다면, 최근의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노동가능성(employability)약화와 가족의 보살핌책임은 고용접근을 제한” 등으로 인해 새롭게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즉 “어린자녀를 가진 여성, 취약한 노인을 보살피는 여성, 비숙련노동자들, 낮은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 등 특정하위집단들” 이 사회적 위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논의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 한부모가족은 1960년대 증가하기 시작해 70년대에 급격히 그 수가 늘었다. 70년대 초 50만명이었던 한부모가족은 1990년대 중반에는 270만명으로 증가했고, 가족형태의 약 24%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혼과 별거의 증가, 10대 출산율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전통적인 가족모델의 붕괴라는 사회문제로 연결되었다. 한편으로 가족의 주요 기능인 인구재생산과 사회화의 주요한 역할인 아동양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졌다.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강한 영국의 경우, 여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족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었고, 1997년 아동빈곤과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인권법(Human Rights Act of 1998)을 제정하고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문서로서 “Supporting Families” 를 발간했다. 가족에 대한 자문보고서로서 처음인 위 정책문서가 의미 있는 점은 한 형태의 관계 혹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압력에 가족을 놓지 않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만 한다는 점이다(임성은, 2010<sup>24)</sup>).

22)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제40집 2호, 189-226.

23) 허미영(2006),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계기와 가족의 역할,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235-262.

24) 임성은(2010), 영국과 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보건복지포럼, 통권제161호,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여성 한부모의 건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빈곤과 고용상태가 건강수준을 설명하는 정도가 16.9%~46.3%라는 측면에서 여성 한부모의 건강은 수입, 빈곤과 떨어져 설명할 수 없다. 2014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중간이하 소득자의 질병유병률이 2.3%인데 비해 한부모여성의 유병률은 7.5%로 나타났다(강창현, 2016<sup>25</sup>).

### ○ 여성 한부모 가족의 자립과 정착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정착을 위해 탈빈곤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탈빈곤정책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상실, 주거문제, 의료문제 등”을 고려한 “소득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런 복지정책이 여성의 관점이나 경험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조보라, 2007: 92<sup>6</sup>). 오히려 복지정책이 여성의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여성들에게 독자적 수급권을 제공하지 못하고, 남편이나 자식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과생적 수급권’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복지제도에 종속되(조보라, 2007: 3)”게 만들기도 한다.

즉 여성의 빈곤화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상태”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2인 생계부양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한명의 소득자가 부재한 상황 “부양의무와 책임은 늘어나지만 이전소득이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한 여성 가구주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노혜진, 2012: 247).

빈곤에 대한 접근 혹은 빈곤에 여성을 교차시켜보면, 여성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여성빈곤이 장기적이며 항시적이라는 점, 다른 한편으로 “빈곤 역동 차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진입과 재진입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라는 점을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 시간부족, 실현가능능력 등 다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

83-103.

25) 강창현(2016), 한부모여성의 건강불평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0권 제4호, 297-319.

26) 조보라(2007), 탈빈곤정책 분석연구: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노혜진, 2012:242).

따라서 국가에 대한 복지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자활패러다임은 저소득 계층의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들이 노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증가시켰더라도,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수급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증가한 근로소득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소득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근로연계를 통해 소득을 증가하였더라도 수급권 상실은 자녀돌봄 대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한부모여성들이 더 심각한 빈곤 상황으로 내몰리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혜숙, 2015: 252<sup>27)</sup>).

현재의 “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에게만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지급되는 정부 서비스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및 차상위 한부모가구 주들을 탈수급보다는 수급잔존을 선택하게 만들며, 자립·자활에 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오혜인, 2013: 526<sup>28)</sup>).

또한 소득과 연계된 경제로만 빈곤과 여성, 여성 한부모를 논할 경우,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노인돌봄과 같은 가족 내 재생산 노동의 가치와 기여에 대한 측면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노혜진, 2012).

한편으로 자활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포함하는 총체적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한부모가 된 여성의 경우, 자활은 “경제적·정신적 자립 능력을 모두 갖추어 나가는 삶의 지속적 과제이자 역동적 과정”이며 복지는 “경제적·정신적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한부모 가구주로서 잃어진 삶의 무게를 덜 수 있는 긴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정혜숙, 2015:253).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빈곤과 자녀양육, 정신건강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일반 가족이슈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성 한부모가족의 지원은 단순하게 수급자탈출이 아니라 포괄적 관점에서

---

27) 정혜숙(2015),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4호, 251-277.

28) 오혜인(2013), 근로 빈곤 한부모 가구의 수급잔존에 관한 근거이론연구-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개인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자기기획을 상상할 수 있는 성장의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요구된다. 성별임금격차가 명백한 노동시장에서 여성 한부모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저임금저숙련 직종에 집중된 여성의 임금을 상향시키는 방법, 보살핌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 직업교육및 훈련과 일자리의 연계 등에서 여성의 관점과 경험의 수용이다(김영란, 2006).

## 3장

### 세종지역 한부모가족 특성

#### 1절. 세종시 사회조사 재분석

1. 세종시 사회조사 요약
2. 2015년 한부모여성 생활실태
3. 2016년 한부모여성 생활실태

#### 2절. 세종지역 한부모가족 현황



## 3장 세종지역 한부모 가족 특성

### 1절. 세종시 사회조사 재분석: 한부모여성

- 세종시 사회조사는 세종시민의 사회적 관심사항과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세종시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방법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2015년,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에서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포함)으로 응답한 응답자를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하였으며, 2015년의 세종시 사회조사에서는 166명,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에서는 188명이 응답했다.
- 세종시 사회조사는 개인, 노동, 주거와 교통, 사회복지, 문화와여가, 정부와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로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별로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부문을 중심으로 재분석하였다.
- 세종시 사회조사 문항 분석중 여성과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석에서 결측치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설문 응답이 제외되어 있었다.
- 수집된 자료는 편집과 코딩화,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했다.

## 1. 세종시 사회조사 요약: 한부모여성

- 연령구성은 2015년 20~30대 ‘배우자가 없음’ 응답자의 비율은 낮아졌고,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늘어났다. 2015년도 40대의 ‘배우자 없음’ 으로 응답한 여성 비율은 4.8%에서 2016년 9.0%로 증가했다. 즉 2016년도 한부모 가운데 20~30대는 감소, 40대는 증가, 50대는 감소, 60대 이상은 증가했다.

**[표 3-1]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연령**

(단위: 명)

구 분	2015년(N=1,046)		2016년(N=1,230)	
	배우자없음	배우자있음	배우자없음	배우자있음
20~30대	8	279	4	350
40대	8	271	17	304
50대	29	146	23	194
60대 이상	121	184	144	194
합계	166	880	188	1,042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 교육정도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많았다. 고학력을 기준으로 볼 경우,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10%,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1%가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정도**

(단위: 명)

구 분	2015년(N=1,046)		2016년(N=1,230)	
	배우자없음	배우자있음	배우자없음	배우자있음
무학	37	22	63	34
초등학교	61	96	62	109
중학교	22	61	19	74
고등학교	34	223	25	215
대학	3	137	7	191
대학교	8	277	10	319
대학원 석사과정	0	53	2	80
대학원 박사과정	1	11	0	20
합계	166	880	188	1,042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 주택형태는 2015년 전체 1,046명(100%)중 유효값은 261명(25.0%), 결측값은 785명(75.0%)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261명, 2016년 전체 1,230명(100%)중 유효값은 266명(21.6%), 결측값은 964명(78.4%)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266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주거형태 문항에 대해서 여성응답자의 결측값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형태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아파트 거주자가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가 많았다.

**[표 3-3]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형태**

(단위: 명)

주거형태		2015년(N=261)			2016년(N=266)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단독주택	빈도	18	67	85	9	86	95
	(%)	13.6%	51.9%	32.6%	7.4%	59.3%	35.7%
아파트	빈도	104	46	150	111	52	163
	(%)	78.8%	35.7%	57.5%	91.7%	35.9%	61.3%
연립·다세대주택	빈도	7	13	20	0	7	7
	(%)	5.3%	10.1%	7.7%	0.0%	4.8%	2.6%
기타	빈도	3	3	6	1	0	1
	(%)	2.3%	2.3%	2.3%	0.8%	0.0%	0.4%
전체(%)		132	129	261	121	145	2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 주거점유형태는 2015년 전체 1,046명(100%)중 유효값은 261명(25.0%), 결측값은 785명(75.0%)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261명, 2016년 전체 1,230명(100%)중 유효값은 266명(21.6%), 결측값은 964명(78.4%)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266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주거점유유형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자기집’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배우자 없는 여성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있으나 ‘전세’ 및 ‘자기집’ 비율이 높았다.

[표 3-4]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점유형태

(단위: 명)

주거점유형태		2015년(N=261)			2016년(N=266)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자기집	빈도	91	81	172	65	95	160
	(%)	68.9%	62.8%	65.9%	53.7%	65.5%	60.2%
전세	빈도	23	6	29	29	17	46
	(%)	17.4%	4.7%	11.1%	24.0%	11.7%	17.3%
보증금 있는 월세	빈도	15	32	47	25	22	47
	(%)	11.4%	24.8%	18.0%	20.7%	15.2%	17.7%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빈도	1	7	8	0	2	2
	(%)	0.8%	5.4%	3.1%	0.0%	1.4%	0.8%
무상	빈도	2	3	5	2	9	11
	(%)	1.5%	2.3%	1.9%	1.7%	6.2%	4.1%
전체(%)		132	129	261	121	145	2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 경제활동상태는 2015년 전체 1,046명(100%), 2016년 전체 1,230명(100%)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세종시의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집단간의 비교하였을 때, ‘배우자가 있음’의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긴 수준이었으나 ‘배우자 없음’의 여성은 70%이상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5] 배우자 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경제활동		2015년(N=1,046)			2016년(N=1,230)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하였다	빈도	384	49	433	524	71	595
	(%)	43.6%	29.5%	41.4%	50.3%	37.8%	48.4%
하지 않았다	빈도	496	117	613	518	117	635
	(%)	56.4%	70.5%	58.6%	49.7%	62.2%	51.6%
전체(%)		880	166	1,046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 비경제활동의 이유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비경제활동에 대한 설문이 진행, 2015년 전체 1,046명(100%)중 유효값은 613명(58.6%), 결측값은 433명(41.4%)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613명, 2016년 전체 1,230명(100%)중 유효값은 635명(51.6%), 결측값은 595명(48.4%)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635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비경제활동의 이유는 2015년 조사에는 ‘배우자 있음’의 여성은 육아와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였고, ‘배우자 없음’의 여성은 연로와 심신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나, 2016년도에는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아가사’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연로·심신장애’라고 응답하였다.

[표 3-6] 배우자 유무에 따른 비경제활동 이유

(단위: 명)

비경제활동 이유		2015년(N=613)			2016년(N=635)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육아·가사	빈도	419	24	443	480	59	539
	(%)	84.5%	20.5%	72.3%	92.7%	50.4%	84.9%
통학 (학교, 학원 등)	빈도	3	0	3	1	0	1
	(%)	0.6%	0.0%	0.5%	0.2%	0.0%	0.2%
취업준비	빈도	39	8	47	6	0	6
	(%)	7.9%	6.8%	7.7%	1.2%	0.0%	0.9%
연로· 심신장애	빈도	14	72	86	20	52	72
	(%)	2.8%	61.5%	14.0%	3.9%	44.4%	11.3%
쉬었음	빈도	21	12	33	10	6	16
	(%)	4.2%	10.3%	5.4%	1.9%	5.1%	2.5%
기타	빈도	0	1	1	1	0	1
	(%)	0.0%	0.9%	0.2%	0.2%	0.0%	0.2%
전체(%)		496	117	613	518	117	63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5년 전체 1,046명(100%)중 유효값은 261명(25.0%), 결측값은 785명(75.0%)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216명, 2016년 1,230명(100%)중 유효값은 476명(38.7%), 결측값은 754명(61.3%)으

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476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월평균 가구소득 ‘배우자 없음’의 여성은 절반 이상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 ‘배우자 있음’의 여성은 2015년에는 300만원~400만원 미만, 2016년 200~3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세종시 여성의 월평균소득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3-7] 배우자 유무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명)

월평균 가구소득		2015년(N=261)			2016년(N=476)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100만원 미만	빈도	20	88	108	71	86	157
	(%)	15.2%	68.2%	41.4%	21.5%	58.9%	33.0%
100만원 ~ 200만원 미만	빈도	10	20	30	51	24	75
	(%)	7.6%	15.5%	11.5%	15.5%	16.4%	15.8%
200만원 ~ 300만원 미만	빈도	26	12	38	78	21	99
	(%)	19.7%	9.3%	14.6%	23.6%	14.4%	20.8%
300만원 ~ 400만원 미만	빈도	31	5	36	46	9	55
	(%)	23.5%	3.9%	13.8%	13.9%	6.2%	11.6%
400만원 ~ 500만원 미만	빈도	24	3	27	34	0	34
	(%)	18.2%	2.3%	10.3%	10.3%	0.0%	7.1%
500만원 ~ 600만원 미만	빈도	11	1	12	25	4	29
	(%)	8.3%	0.8%	4.6%	7.6%	2.7%	6.1%
600만원 ~ 700만원 미만	빈도	6	0	6	12	1	13
	(%)	4.5%	0.0%	2.3%	3.6%	0.7%	2.7%
700만원 이상	빈도	4	0	4	13	1	14
	(%)	3.0%	0.0%	1.5%	3.9%	0.7%	2.9%
전체(%)		132	129	261	330	146	4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 월평균저축은 가구주만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항목으로 2015년 전체 1,046명(100%)중 유효값은 261명(25.0%), 결측값은 785명(75.0%)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261명, 2016년도 전체 1,230명(100%)중 유효값은 316명(25.7%), 결측값은 914명(74.3%)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316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월평균 저축액<sup>29)</sup>은 ‘배우자 없음’의 여성의 대부분은 ‘저축하지 않음’, ‘가구소득의 10%미만’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음’으로 응답한 여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배우자 없음’ 여성의 경제적인 준비상황에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표 3-8] 배우자 유무에 따른 월평균 저축액

(단위: 명)

월평균 저축액		2015년(N=261)			2016년(N=316)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저축하지 않음	빈도	19	80	99	7	70	77
	(%)	14.4%	62.0%	37.9%	4.1%	48.6%	24.4%
10%미만	빈도	38	31	69	29	34	63
	(%)	28.8%	24.0%	26.4%	16.9%	23.6%	19.9%
10% ~ 20%미만	빈도	34	11	45	35	11	46
	(%)	25.8%	8.5%	17.2%	20.3%	7.6%	14.6%
20% ~ 30%미만	빈도	24	6	30	55	7	62
	(%)	18.2%	4.7%	11.5%	32.0%	4.9%	19.6%
30% ~ 40%미만	빈도	8	1	9	22	14	36
	(%)	6.1%	0.8%	3.4%	12.8%	9.7%	11.4%
40% ~ 50%미만	빈도	7	0	7	17	7	24
	(%)	5.3%	0.0%	2.7%	9.9%	4.9%	7.6%
50%이상	빈도	2	0	2	7	1	8
	(%)	1.5%	0.0%	0.8%	4.1%	0.7%	2.5%
전체(%)		132	129	261	172	144	31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 거주지 선택 2015년 전체 1,046명(100%)중 유효값은 261명(25.0%), 결측값은 785명(75.0%)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261명, 2016년 전체 1,230명(100%)중 유효값은 1,031명(83.8%), 결측값은 199명(16.2%)으로 결과 분석은 유효값 1,031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거주지 선택 이유 ‘배우자 없음’ 응답자는 예전부터 살던 곳을 거주지로 선택하는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

29) 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저축률 월평균 저축률

녀를 따라 거주지, 직장이나 취업(정부세종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선택했다.

[표 3-9]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지 선택 이유

(단위: 명)

주거지 선택 이유		2015년(N=261)			2016년(N=1,031)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옛날부터 살던 곳이라서	빈도	21	49	70	116	67	183
	(%)	15.9	38.0	26.8	13.3	42.4	17.7
직장이나 취업(청사이전 등)	빈도	40	21	61	155	13	168
	(%)	30.3	16.3	23.4	17.8	8.2	16.3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따라서(결혼 포함)	빈도	24	23	47	312	52	364
	(%)	18.2	17.8	18.0	35.7	32.9	35.3
주택마련 <sup>30)</sup>	빈도	23	10	33	159	18	177
	(%)	17.4	7.8	12.6	18.2	11.4	17.2
교육여건이 좋아서	빈도	9	0	9	48	0	48
	(%)	6.8	0.0	3.4	5.5	0.0	4.7
환경이나 건강 때문에	빈도	10	17	27	36	3	39
	(%)	7.6	13.2	10.3	4.1	1.9	3.8
교통이 편리해서	빈도	2	3	5	18	1	19
	(%)	1.5	2.3	1.9	2.1	0.6	1.8
편의시설(병원, 은행 등) 때문에	빈도	1	1	2	8	0	8
	(%)	0.8	0.8	0.8	0.9	0.0	0.8
학업때문에	빈도	0	0	0	20	2	22
	(%)	0.0	0.0	0.0	2.3	1.3	2.1
기타	빈도	2	5	7	1	2	3
	(%)	1.5	3.9	2.7	0.1	1.3	0.3
전체(%)		132	129	261	873	158	1,0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30) 2016년도 주택에 대한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유 배우자70명(8.0%), 무 배우자14명(8.9%) 경제적 가치상승 유 배우자 89명(10.2%), 무 배우자 4명(2.5%)을 고려하여 문항이 추가 되었으나 2015년도 가족에 맞춰 ‘주택마련’ 문항으로 합해서 제공 함.

## 2. 2015년 한부모여성 생활실태(2015년 세종시 사회조사 통계 재분석)

### (1) 분석대상

- 분석대상 : 총 조사 대상자는 2,681명으로 여성 1,318명, 남성 1,363명이다. 이 가운데 미혼인 여성 272명을 제외한 1046명을 추출하여, 혼인상태의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한 여성 880명, 사별과 이혼이라고 응답한 166명을 비교하여 분석했다.
- 연령 구성 : 한부모로 예측되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30대 8명(4.8%), 40대 8명(4.8%), 50대 29명(17.4%), 60대 이상이 121명(72.8%)로 조사됐다. 배우자 없는 응답자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전체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24.6%, 40대가 26.7%, 50대가 18.8%, 60대 이상이 29.9%로 조사됐다.

[표 3-10]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연령

연령	2015년(N=1,046)	
	배우자없음	배우자있음
20~30대	8	279
40대	8	271
50대	29	146
60대 이상	121	184
합계	166	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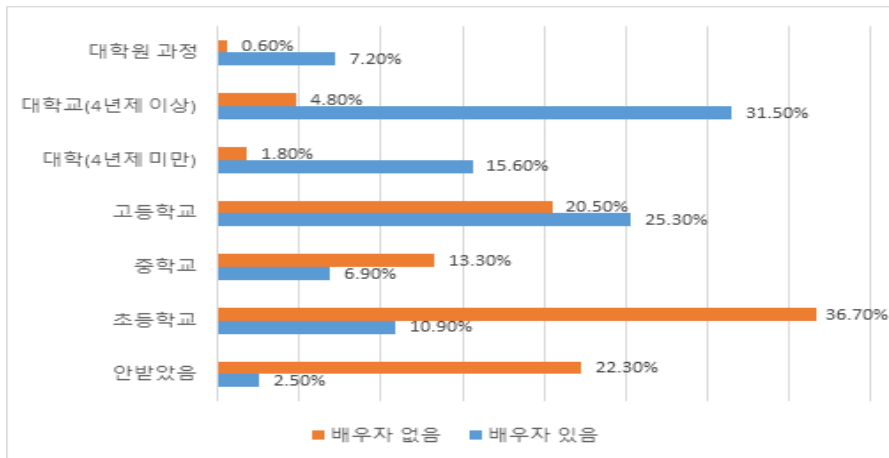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 교육정도 :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31.5%가 4년제 이상의 대학의 졸업했고, 65.2%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3-11]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정도

(단위: 명)

교육정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무학	빈도	22	37	59	
	(%)	2.5%	22.3%	5.6%	
초등학교	빈도	96	61	157	
	(%)	10.9%	36.7%	15.0%	
중학교	빈도	61	22	83	
	(%)	6.9%	13.3%	7.9%	
고등학교	빈도	223	34	257	
	(%)	25.3%	20.5%	24.6%	
대학	빈도	137	3	140	
	(%)	15.6%	1.8%	13.4%	
대학교	빈도	277	8	285	
	(%)	31.5%	4.8%	27.2%	
대학원 석사과정	빈도	53	0	53	
	(%)	6.0%	0.0%	5.1%	
대학원 박사과정	빈도	11	1	12	
	(%)	1.2%	0.6%	1.1%	
합계(%)		880	166	1,046	
		100.0%	100.0%	100.0%	



[그림 3-1]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

(2) 주거

- 주택형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여성의 40%이상이 단독주택에, 27.7%는 아파트에 거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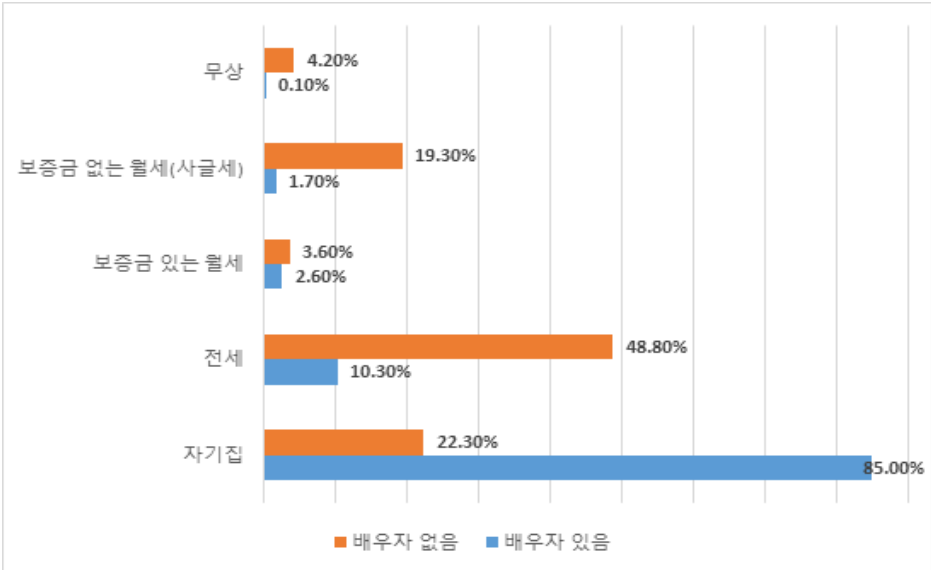
[표 3-12]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형태

주거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748	37	785	391.481*** (.000)
		85.0%	22.3%	75.0%	
단독주택	빈도 (%)	18	67	85	
		2.0%	40.4%	8.1%	
아파트	빈도 (%)	104	46	150	
		11.8%	27.7%	14.3%	
연립·다세대 주택	빈도 (%)	7	13	20	
		0.8%	7.8%	1.9%	
기타	빈도 (%)	3	3	6	
		0.3%	1.8%	0.6%	
전체(%)		880	166	1,046	
		100.0%	100.0%	100.0%	

○ 주거점유형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85.5%로 대다수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약 4분의 1수준인 22.3%가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48.8%는 전세, 보증금없는 월세는 19.3%에 이른다.

[표 3-13]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점유형태

주거점유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748	37	785	333.289*** (.000)
		85.0%	22.3%	75.0%	
자기집	빈도 (%)	91	81	172	
		10.3%	48.8%	16.4%	
전세	빈도 (%)	23	6	29	
		2.6%	3.6%	2.8%	
보증금 있는 월세	빈도 (%)	15	32	47	
		1.7%	19.3%	4.5%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빈도 (%)	1	7	8	
		0.1%	4.2%	0.8%	
무상	빈도 (%)	2	3	5	
		0.2%	1.8%	0.5%	
전체(%)		880	166	1,046	
		100.0%	100.0%	100.0%	



[그림 3-2]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점유 형태의 차이

### (3) 가족 관계 만족도

-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자녀관계와 부모관계, 형제자매관계, 배우자 형제자매관계 등에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보다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3-14] 배우자 유무에 따른 가족 관계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해당 없음	(%)	매우 약간 만족	(%)	보통	(%)	약간+ 매우 불만 족	(%)	전체	(%)
자녀 관계	배우자 있음	74	7.1%	694	66.6%	110	10.6%	2	0.2%	880	84.5%
	배우자 없음	9	0.9%	118	11.3%	32	3.1%	7	0.7%	166	15.9%
부모 관계	배우자 있음	209	20.1%	525	50.4%	137	13.1%	9	0.9%	880	84.5%
	배우자 없음	130	12.5%	20	1.9%	15	1.4%	1	0.1%	166	15.9%
배우 자 부모 관계	배우자 있음	229	22.0%	440	42.2%	175	16.8%	36	3.5%	880	84.5%
	배우자 없음	155	14.9%	6	0.6%	4	0.4%	1	0.1%	166	15.9%
형제 관계	배우자 있음	20	1.9%	606	58.2%	233	22.4%	21	2.0%	880	84.5%
	배우자 없음	23	2.2%	71	6.8%	61	5.9%	11	1.1%	166	15.9%
배우 자 형제 관계	배우자 있음	35	3.4%	508	48.8%	288	27.6%	49	4.7%	880	84.5%
	배우자 없음	82	7.9%	32	3.1%	41	3.9%	11	1.1%	166	15.9%
배우 자 관계	배우자 있음	0	0.0%	690	66.2%	164	15.7%	26	2.5%	880	84.5%
	배우자 없음	166	15.9%	0	0.0%	0	0.0%	0	0.0%	166	15.9%
전반 적 관계	배우자 있음	0	0.0%	662	63.5%	209	20.1%	9	0.9%	880	84.5%
	배우자 없음	5	0.5%	98	9.4%	57	5.5%	6	0.6%	166	15.9%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 (4) 경제활동

- 지난 1주간 본인의 경제활동 상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5%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인 56.4%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5] 배우자 유무에 따른 1주간 경제활동 상태**

1주간 경제활동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하였다	빈도	384	49	433	11.475** (.001)
	(%)	43.6%	29.5%	41.4%	
하지 않았다	빈도	496	117	613	
	(%)	56.4%	70.5%	58.6%	
전체(%)		880	166	1,046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비경제활동의 이유 구체적인 비경제활동의 이유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연로와 심신장애’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육아-가사’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표 3-16] 배우자 유무에 따른 비경제활동 이유**

비경제활동 이유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384	49	433	355.809*** (.000)
	(%)	43.6%	29.5%	41.4%	
육아·가사	빈도	419	24	443	
	(%)	47.6%	14.5%	42.4%	
통학(학교, 학원 등)	빈도	3	0	3	
	(%)	0.3%	0.0%	0.3%	
취업준비	빈도	39	8	47	
	(%)	4.4%	4.8%	4.5%	
연로·심신장애	빈도	14	72	86	
	(%)	1.6%	43.4%	8.2%	
쉬었음	빈도	21	12	33	
	(%)	2.4%	7.2%	3.2%	
기타	빈도	0	1	1	
	(%)	0.0%	0.6%	0.1%	
전체(%)		880	166	1,046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19.3%가 임금근로자인 반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30.7%가 임금근로자였다.

[표 3-17] 배우자 유무에 따른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496	117	613	23.257*** (.000)
		56.4%	70.5%	58.6%	
임금근로자	빈도 (%)	270	32	302	
		30.7%	19.3%	28.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빈도 (%)	16	5	21	
		1.8%	3.0%	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빈도 (%)	37	11	48	
		4.2%	6.6%	4.6%	
무급가족종사자	빈도 (%)	61	1	62	
		6.9%	0.6%	5.9%	
전체(%)		880	166	1,046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근로형태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이 11.4%로 배우자가 있는 상용근로자 비율인 23.5%보다 대략 10% 가량 낮다.

[표 3-18] 배우자 유무에 따른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610	134	744	16.434** (.001)
		69.3%	80.7%	71.1%	
상용근로자	빈도 (%)	207	19	226	
		23.5%	11.4%	21.6%	
임시근로자	빈도 (%)	43	5	48	
		4.9%	3.0%	4.6%	
일용근로자	빈도 (%)	20	8	28	
		2.3%	4.8%	2.7%	
전체(%)		880	166	1,046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5) 경제적 상황

- 월평균가구소득에 있어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53%가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2.3%만이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을 보면, 배우자 없는 집단의 상당수가 빈곤계층임을 알 수 있다.

[표 3-19] 배우자 유무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748	37	785	489.367*** (.000)
		85.0%	22.3%	75.0%	
100만원 미만	빈도 (%)	20	88	108	
		2.3%	53.0%	10.3%	
100만원 ~ 200만원 미만	빈도 (%)	10	20	30	
		1.1%	12.0%	2.9%	
200만원 ~ 300만원 미만	빈도 (%)	26	12	38	
		3.0%	7.2%	3.6%	
300만원 ~ 400만원 미만	빈도 (%)	31	5	36	
		3.5%	3.0%	3.4%	
400만원 ~ 500만원 미만	빈도 (%)	24	3	27	
		2.7%	1.8%	2.6%	
500만원 ~ 600만원 미만	빈도 (%)	11	1	12	
		1.2%	0.6%	1.1%	
600만원 ~ 700만원 미만	빈도 (%)	6	0	6	
		0.7%	0.0%	0.6%	
700만원 이상	빈도 (%)	4	0	4	
		0.5%	0.0%	0.4%	
전체(%)		880	166	1,046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48.2%가 저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2.2%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표 3-20] 배우자 유무에 따른 월평균 저축액

월평균 저축액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748	37	785	434.214*** (.000)
		85.0%	22.3%	75.0%	
10%미만	빈도 (%)	38	31	69	
		4.3%	18.7%	6.6%	
10% ~ 20%미만	빈도 (%)	34	11	45	
		3.9%	6.6%	4.3%	
20% ~ 30%미만	빈도 (%)	24	6	30	
		2.7%	3.6%	2.9%	
30% ~ 40%미만	빈도 (%)	8	1	9	
		0.9%	0.6%	0.9%	
40% ~ 50%미만	빈도 (%)	7	0	7	
		0.8%	0.0%	0.7%	
50%이상	빈도 (%)	2	0	2	
		0.2%	0.0%	0.2%	
저축하지 않음	빈도 (%)	19	80	99	
		2.2%	48.2%	9.5%	
전체 (%)		880	166	1,046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6) 현 거주지 선택이유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옛날부터 살던 곳이라서 거주지를 선택(29.5%)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4%에 그쳤다.

[표 3-21] 배우자 유무에 따른 현 거주지 선택

현 거주지 선택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이혼, 사별)	전체	X2(p)
결측값	빈도	748	37	785	357.940*** (.000)
	(%)	85.0%	22.3%	75.0%	
옛날부터 살던 곳이라서	빈도	21	49	70	
	(%)	2.4%	29.5%	6.7%	
기타	빈도	2	5	7	
	(%)	0.2%	3.0%	0.7%	
직장이나 취업(정부세종청사 이전 등)	빈도	40	21	61	
	(%)	4.5%	12.7%	5.8%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따라서(결혼 포함)	빈도	24	23	47	
	(%)	2.7%	13.9%	4.5%	
주택마련	빈도	23	10	33	
	(%)	2.6%	6.0%	3.2%	
교육여건이 좋아서	빈도	9	0	9	
	(%)	1.0%	0.0%	0.9%	
환경이나 건강 때문에	빈도	10	17	27	
	(%)	1.1%	10.2%	2.6%	
교통이 편리해서	빈도	2	3	5	
	(%)	0.2%	1.8%	0.5%	
편의시설(병원, 은행 등) 때문에	빈도	1	1	2	
	(%)	0.1%	0.6%	0.2%	
전체 (%)		880	166	1,046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7) 여성의 삶의 질

-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와 있는 응답자에게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에서 일자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제일 높았고, 다음이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육아 및 출산지원 순이었다.



[표 3-22]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성의 삶의 질

여성의 삶의 질		빈도 (%)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교양강좌, 헬스, 요가 등)	빈도 (%)	223	44	267	25.5%	10.890 (.054)
		25.3%	26.5%	25.5%		
여성 일자리 확대(취업 및 교육 지원)	빈도 (%)	350	70	420	40.2%	
		39.8%	42.2%	40.2%		
육아 및 출산 지원(육아, 출산준비 교육 및 도우미 파견)	빈도 (%)	208	28	236	22.6%	
		23.6%	16.9%	22.6%		
가족문제 상담 지원	빈도 (%)	46	9	55	5.3%	
		5.2%	5.4%	5.3%		
자녀교육 프로그램 지원	빈도 (%)	51	12	63	6.0%	
		5.8%	7.2%	6.0%		
기 타	빈도 (%)	2	3	5	0.5%	
		0.2%	1.8%	0.5%		
전체 (%)		880	166	1,046	100.0%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8) 마을공동체 참여의향

○ 마을공동체 참여의향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67.5%가 참여를 원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52.0%가 희망하지 않는다고 조사됐다.

[표 3-23] 배우자 유무에 따른 마을공동체 참여의향

마을공동체 참여의향		빈도 (%)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희망함	빈도 (%)	422	54	476	45.5%	13.399*** (.000)
		48.0%	32.5%	45.5%		
희망하지 않음	빈도 (%)	458	112	570	54.5%	
		52.0%	67.5%	54.5%		
전체 (%)		880	166	1,046	100.0%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9)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정서경험**

○ 삶에 대한 행복, 우울감을 덜 느끼는 정도,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등에 대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수준에 있어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보다 낮게 조사됐다.

**[표 3-24]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정서경험**

(단위: 명, (%))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정서경험		0~3점	%	4~6점	%	7~10점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삶 만족_행복 정도 <sup>31)</sup>	배우자 있음	123	10.0%	449	36.5%	469	38.1%	1041	84.6%
	배우자 없음	21	1.7%	115	9.3%	52	4.2%	188	15.3%
삶에 대한_근심	배우자 있음	375	30.5%	457	37.2%	210	17.1%	1042	84.7%
	배우자 없음	71	5.8%	85	6.9%	32	2.6%	188	15.3%
삶에 대한_우울	배우자 있음	507	41.2%	401	32.6%	134	10.9%	1042	84.7%
	배우자 없음	84	6.8%	78	6.3%	26	2.1%	188	15.3%
삶 전반_만족도	배우자 있음	285	23.2%	426	34.6%	331	26.9%	1042	84.7%
	배우자 없음	47	3.8%	98	8.0%	43	3.5%	188	15.3%
하는 일_가치 여부	배우자 있음	201	16.3%	436	35.4%	404	32.8%	1041	84.6%
	배우자 없음	43	3.5%	98	8.0%	47	3.8%	188	15.3%

자료: 세종시 사회조사 토대로 재구성

31) 삶 만족 행복정도의 배우자 있음의 결측치 1명

### 3. 2016년 한부모여성 생활실태(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 통계 재분석)

#### (1) 분석대상

- 분석대상은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 총 조사대상자는 2,982명으로 여성 1528명, 남성 1,453명이다. 이 가운데 미혼인 여성 298명을 제외한 1,230명을 추출하여, 혼인상태의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한 여성 1042명, 사별과 이혼이라고 응답한 188명을 비교하여 분석했다.
- 연령구성은 한부모로 예측되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30대 4명(2.1%), 40대 17명(9.0%), 50대 23명(12.2%). 60대 이상이 144명(76.5%)로 조사됐다. 배우자 없는 응답자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전체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26%, 40대가 26.1%, 50대가 17.6%, 60대 이상이 27.4%로 조사됐다.

[표 3-25]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연령

(단위 : 명)

연령	2015년(N=1230)	
	배우자없음	배우자있음
20~30대	4	350
40대	17	304
50대	23	194
60대 이상	144	194
합계	188	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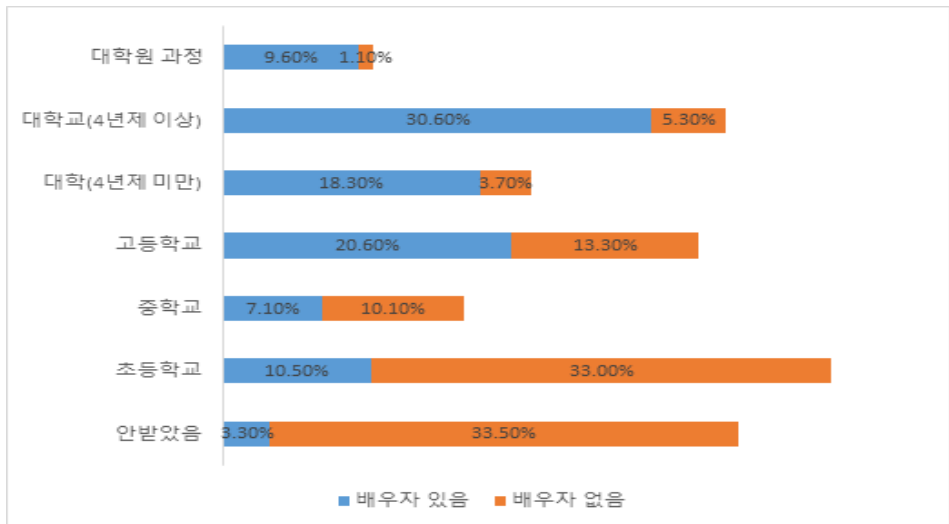
- 교육정도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33.5%), 초등학교 졸업이(33.0%)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이 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20.6%로 많았다.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경우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략 10%정도의 수준이 대학원 과정을 졸업했다고 응답한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인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정도의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보였다.

[표 3-26]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정도

(단위: 명)

교육정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무학	빈도	34	63	97	
	(%)	3.3%	33.5%	7.9%	
초등학교	빈도	109	62	171	
	(%)	10.5%	33.0%	13.9%	
중학교	빈도	74	19	93	
	(%)	7.1%	10.1%	7.6%	
고등학교	빈도	215	25	240	
	(%)	20.6%	13.3%	19.5%	
대학	빈도	191	7	198	
	(%)	18.3%	3.7%	16.1%	
대학교	빈도	319	10	329	
	(%)	30.6%	5.3%	26.7%	
대학원 석사과정	빈도	80	2	82	
	(%)	7.7%	1.1%	6.7%	
대학원 박사과정	빈도	20	0	20	
	(%)	1.9%	0.0%	1.6%	
합계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그림 3-3]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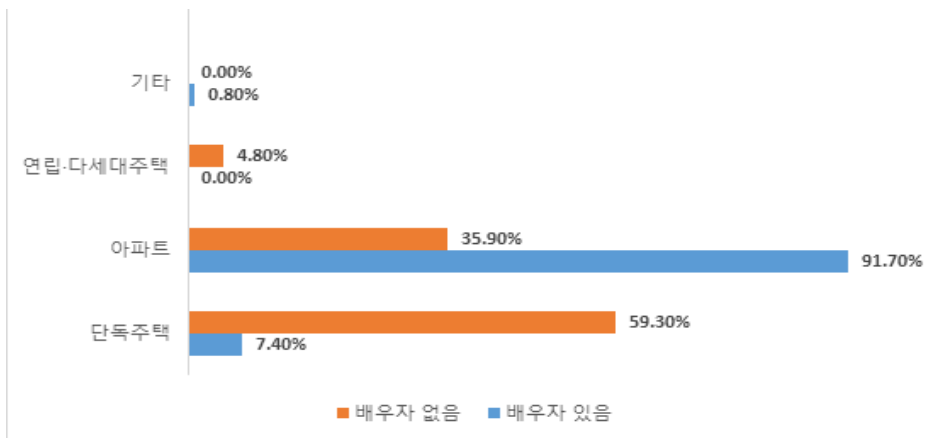
(2) 주거

- 주택형태에 있어서 결측값을 제외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10.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45.7%가 단독주택이라고 응답했다.
-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형태

주거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921	43	964	90.336*** (.000)
		88.4%	22.9%	78.4%	
단독주택	빈도 (%)	9	86	95	
		0.9%	45.7%	7.7%	
아파트	빈도 (%)	111	52	163	
		10.7%	27.7%	13.3%	
연립·다세대 주택	빈도 (%)	0	7	7	
		0.0%	3.7%	0.6%	
기타	빈도 (%)	1	0	1	
		0.1%	0.0%	0.1%	
전체 (%)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그림 3-4]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택형태의 차이

- 주거점유형태 배우자가 있거나 없거나 두 집단 모두에서 ‘자기집’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각각 53.7%, 65.5%로 높았다.
- 전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자기집’에 사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배우자 유무에 따른 주거점유형태

주거점유형태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921 88.4%	43 22.9%	964 78.4%	13.345* (.010)
	자기집	65 53.7%	95 65.5%	160 60.2%	
전세	빈도 (%)	29 24.0%	17 11.7%	46 17.3%	
	보증금 있는 월세	25 20.7%	22 15.2%	47 17.7%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빈도 (%)	0 0.0%	2 1.4%	2 0.8%	
	무상	빈도 (%)	2 1.7%	9 6.2%	
전체 (%)		1,042 100.0%	188 100.0%	1,230 100.0%	

\* p<.05, \*\* p<.01, \*\*\*p<.001

### (3) 경제활동

- 지난 1주간 본인 경제활동 상태 :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62.2%)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49.7%)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29] 배우자 유무에 따른 경제활동

경제활동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하였다	빈도 (%)	524	71	595	10.00** (.002)
		50.3%	37.8%	48.4%	
하지 않았다	빈도 (%)	518	117	635	
		49.7%	62.2%	51.6%	
전체 (%)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비경제활동의 이유 : 비경제활동의 이유에 대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은 ‘연로·심신장애’가 44.4%로 나왔고,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육아와 가사’가 92.7%로 조사됐다.

[표 3-30] 배우자 유무에 따른 비경제활동 이유

(단위: 명)

비경제활동 이유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524	71	595	10.00** (.002)
		50.3%	37.8%	48.4%	
육아·가사	빈도 (%)	480	59	539	
		46.1%	31.4%	43.8%	
통학(학교, 학원 등)	빈도 (%)	1	0	1	
		0.1%	0.0%	0.1%	
취업준비	빈도 (%)	6	0	6	
		0.6%	0.0%	0.5%	
연로·심신장애	빈도 (%)	20	52	72	
		1.9%	27.7%	5.9%	
쉬었음	빈도 (%)	10	6	16	
		1.0%	3.2%	1.3%	
기타	빈도 (%)	1	0	1	
		0.1%	0.0%	0.1%	
전체 (%)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4) 경제적 상황

- 월평균 가구소득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이 58.9%인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40% 가량이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31] 배우자 유무에 따른 경제적 상황

(단위: 명)

경제적 상황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712	42	754	78.225*** (.000)
		68.3%	22.3%	61.3%	
100만원 미만	빈도 (%)	71	86	157	
		6.8%	45.7%	12.8%	
100만원 ~ 200만원 미만	빈도 (%)	51	24	75	
		4.9%	12.8%	6.1%	
200만원 ~ 300만원 미만	빈도 (%)	78	21	99	
		7.5%	11.2%	8.0%	
300만원 ~ 400만원 미만	빈도 (%)	46	9	55	
		4.4%	4.8%	4.5%	
400만원 ~ 500만원 미만	빈도 (%)	34	0	34	
		3.3%	0.0%	2.8%	
500만원 ~ 600만원 미만	빈도 (%)	25	4	29	
		2.4%	2.1%	2.4%	
600만원 ~ 700만원 미만	빈도 (%)	12	1	13	
		1.2%	0.5%	1.1%	
700만원 이상	빈도 (%)	13	1	14	
		1.2%	0.5%	1.1%	
전체 (%)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48.6%가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단지 4.1%만 저축을 하고 있지 않았다.



[표 3-32] 배우자 유무에 따른 월평균 저축액

(단위: 명)

월평균 저축액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870 83.5%	44 39.9%	914 76.8%	110.456*** (.000)	
	10%미만	29 2.8%	34 1.6%	63 2.6%		
10% ~ 20%미만	빈도 (%)	35 3.4%	11 5.9%	46 3.7%		
	20% ~ 30%미만	55 5.3%	7 3.7%	62 5.0%		
30% ~ 40%미만	빈도 (%)	22 2.1%	14 7.4%	36 2.9%		
	40% ~ 50%미만	17 1.6%	7 3.7%	24 2.0%		
50%이상	빈도 (%)	7 0.7%	1 0.5%	8 0.7%		
	저축하지 않음	7 0.7%	70 37.2%	77 6.3%		
전체(%)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5) 일자리

- 지난 1개월간 구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배우자 유무에 따른 구직활동

(단위: 명)

구직활동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425 40.8%	62 5.0%	487 39.6%	11.622*** (.000)	
	있다	87 8.3%	4 2.1%	91 7.4%		
없다	빈도 (%)	530 50.9%	122 64.9%	652 53.0%		
	전체(%)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취업의 어려움 일자리를 찾기의 어려움에 대해 배우자가 없는 집단은 자격요건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희망직종 일자리의 부족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표 3-34] 배우자 유무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

(단위: 명)

취업의 어려움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	861 82.6%	174 92.6%	1035 84.1%	15.884* (.014)	
	희망 임금수준 불일치	빈도 (%)	31 3.0%	1 0.5%		32 2.6%
희망 근무시간 불일치	빈도 (%)	53 5.1%	1 0.5%	54 4.4%		
희망 직종의 일자리 부족	빈도 (%)	67 6.4%	5 2.7%	72 5.9%		
희망 직종의 자격요건 미충족(자격증, 경력 등)	빈도 (%)	21 2.0%	6 3.2%	27 2.2%		
채용정보 접근의 어려움	빈도 (%)	5 0.5%	0 0.0%	5 0.4%		
근로여건 미비(대중교통, 기숙사 지원 등)	빈도 (%)	2 0.2%	0 0.0%	2 0.2%		
기타	빈도 (%)	2 0.2%	1 0.5%	3 0.2%		
전체(%)		1,042 100.0%	188 100.0%	1,230 100.0%		

\* p<.05, \*\* p<.01, \*\*\*p<.001

### (6) 현 거주지 선택이유

- 배우자가 없는 집단은 옛날부터 살던 곳을 거주지로 선택하는 비율이 35.6%인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따라(29.9%), 직장이나 취업(14.9%)을 이유로 거주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35] 배우자 유무에 따른 현 거주지 선택이유

(단위: 명)

현 거주지 선택이유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169	30	199	100.832*** (.000)
	(%)	16.2%	16.0%	16.2%	
옛날부터 살던 곳이라서	빈도	116	67	183	
	(%)	11.1%	35.6%	14.9%	
자녀 또는 본인의 학업 때문에	빈도	20	2	22	
	(%)	1.9%	1.1%	1.8%	
기타	빈도	1	2	3	
	(%)	0.1%	1.1%	0.2%	
사업상 또는 직장 때문에(정부세종청사 이전 등)	빈도	155	13	168	
	(%)	14.9%	6.9%	13.7%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따라서(결혼 포함)	빈도	312	52	364	
	(%)	29.9%	27.7%	29.6%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빈도	70	14	84	
	(%)	6.7%	7.4%	6.8%	
경제적 가치상승을 고려하여	빈도	89	4	93	
	(%)	8.5%	2.1%	7.6%	
교육여건이 좋아서	빈도	48	0	48	
	(%)	4.6%	0.0%	3.9%	
환경이나 건강 때문에	빈도	36	3	39	
	(%)	3.5%	1.6%	3.2%	
교통이 편리해서	빈도	18	1	19	
	(%)	1.7%	0.5%	1.5%	
편의시설(병원, 은행 등) 때문에	빈도	8	0	8	
	(%)	0.8%	0.0%	0.7%	
전체(%)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7) 여성의 삶의 질

-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한 정책에 대해 배우자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모두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다음이 육아와 출산 지원, 여성문화 및 여가활동이 뒤를 이었다.

[표 3-36]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성의 삶의 질

(단위: 명)

여성의 삶의 질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220	32	252	10.255 (.068)
	(%)	21.1%	17.0%	20.5%	
여성 문화·여가 활동 지원(교양강좌, 헬스, 요가 등)	빈도	174	27	201	
	(%)	16.7%	14.4%	16.3%	
여성 일자리 확대(취업 및 교육 지원)	빈도	316	60	376	
	(%)	30.3%	31.9%	30.6%	
육아 및 출산 지원(육아, 출산준비 교육 및도우미 파견)	빈도	241	50	291	
	(%)	23.1%	26.6%	23.7%	
가족문제 상담 지원	빈도	45	13	58	
	(%)	4.3%	6.9%	4.7%	
자녀교육 프로그램 지원	빈도	39	2	41	
	(%)	3.7%	1.1%	3.3%	
기 타	빈도	7	4	11	
	(%)	0.7%	2.1%	0.9%	
전체 (%)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8) 여가활동

- 현재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에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에서 TV시청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관광활동 비율이 높은 반면에, 배우자가 없는 집단은 비율이 낮았다.

[표 3-37]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1순위

(단위: 명)

여가활동 1순위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체	X2(p)
결측값	빈도	255	40	295	60.390* ** (.000)
	(%)	24.5%	21.3%	24.0%	
TV시청 (유선방송, DVD 시청 등)	빈도	367	114	481	
	(%)	35.2%	60.6%	39.1%	
문화예술 관람 (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	빈도	65	0	65	
	(%)	6.2%	0.0%	5.3%	
문화예술 참여(독서토론, 미술활동, 악기연주, 사진촬영 등)	빈도	18	1	19	
	(%)	1.7%	0.5%	1.5%	
스포츠 관람	빈도	7	0	7	
	(%)	0.7%	0.0%	0.6%	
스포츠 활동(축구, 테니스, 골프, 당구, 체조, 승마 등)	빈도	32	1	33	
	(%)	3.1%	0.5%	2.7%	
관광 활동(국내·해외 여행, 캠핑 등)	빈도	138	6	144	
	(%)	13.2%	3.2%	11.7%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빈도	5	0	5	
	(%)	0.5%	0.0%	0.4%	
취미·자기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빈도	29	2	31	
	(%)	2.8%	1.1%	2.5%	
휴식 활동(수면, 사우나 등)	빈도	61	13	74	
	(%)	5.9%	6.9%	6.0%	
사회 및 기타 활동(봉사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등)	빈도	55	8	63	
	(%)	5.3%	4.3%	5.1%	
기타	빈도	10	3	13	
	(%)	1.0%	1.6%	1.1%	
전체 (%)		1,042	188	1,230	
		100.0%	100.0%	100.0%	

\* p<.05, \*\* p<.01, \*\*\*p<.001

## 2절. 세종지역 한부모가족 현황

### 1. 세종지역의 한부모 현황

#### (1) 여성 가구주

-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세종시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주는 21,522가구로 일반가구주의 28.61%에 해당한다. 여성가구주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5년 6,264가구가 2015년에는 21,522가구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했다.

[표 3-38] 세종시 가구수 현황

(단위: 가구)

연 별	일반가구수 <sup>32)</sup>	여성가구주 가구수 <sup>33)</sup>
2005	28,346	6,264
2010	29,268	7,205
2013	44,523	10,690
2015	75,219	21,522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6년 인구총조사

#### (2) 한부모가족

- 세종지역 한부모(모자 +부자)가구도 증가세에 있다. 2012년 총 304가구였던 한부모가구는 2015년 727가구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60가구에 머물렀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는 2015년 299가구로 5배가량 증가했다.

32)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비혈연가구, 1인가구 포함), 단,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는 제외

33)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 일반가구수/여성가구수\*100

[표 3-39] 세종시 여성가구주 현황

(단위: 명(%))

연 별	한부모 전체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2012	304(100%)	244(80.26%)	60(19.74%)
2013	482(100%)	359(74.48%)	123(25.52%)
2014	449(100%)	381(84.86%)	68(15.14%)
2015	727(100%)	498(68.50%)	299(31.50%)

자료: 2016 세종통계연보

- 지역별 세종시 한부모 현황을 살펴보면, 총 727가구 가운데 조치원읍에 259가구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이 아람동(85가구)과 도담동(61가구)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는 조치원 170가구, 아람동 56가구, 전의면 32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는 조치원 89가구, 도담동 51가구, 아람동 29가구로 조사됐다.
-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한부모가구의 총 가구원수에서 여성(1,459명)이 남성(948명)보다 약 1.5배 많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도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표 3-40] 세종시 읍면동별 한부모 현황

(단위: 명)

연별 읍면 동별	합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 구 수	가구원수			가 구 수	가구원수			가 구 수	가구원수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2	304	712	-	-	244	532	-	-	60	180	-	-
2013	482	1,312	-	-	359	958	534	424	123	354	-	-
2014	449	1,116	132	-	381	925	245	680	68	191	67	124
2015	727	2,407	948	1,459	498	1,278	488	790	299	1,129	460	669
조치원읍 <sup>34)</sup>	259	855	331	524	170	450	165	285	89	405	166	239
연기면	16	42	10	32	13	29	7	22	3	13	3	10
연동면	8	32	10	22	6	17	4	13	2	15	6	9
부강면	37	134	57	77	28	71	25	46	9	63	32	31
금남면	31	92	40	52	22	49	20	29	9	43	20	23
장군면	15	42	25	17	11	23	13	10	4	19	12	7
연서면	23	75	43	32	18	44	23	21	5	31	20	11
전의면	49	143	67	76	32	76	36	40	17	67	31	36
전동면	12	44	18	26	8	25	8	17	4	19	10	9
소정면	13	55	23	32	10	29	11	18	3	26	12	14
한솔동	21	82	52	30	17	47	34	13	4	35	18	17
도담동	61	563	205	358	10	288	109	179	51	275	96	179
아름동	85	248	67	181	56	130	33	97	29	118	34	84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6년 인구총조사, 2016 세종통계연보

### (3) 독거노인 현황

- 생애과정에서 한부모여성의 경우 독거노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거노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독거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남성 194명, 여성 550명이었던 독거노인 국민기초생활보

34) 2015년도 저소득 및 한부모가족 읍면동으로 구분



장수급자는 2015년 남성 414명, 여성 785명으로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노인의 경우에도, 성별통계가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빈곤한 상태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41] 세종시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연 별 읍 면 동 별	합 계	남	여	저소득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3	4,684	1,357	3,327	360	52	308	744	194	550
2014	6,251	-	-	706			750	207	543
2015	6,308	-	-	715			1,199	414	785
조치원읍	-	-	-				319	103	216
연기면	-	-	-				22	6	16
연동면	-	-	-				55	13	42
부강면	-	-	-				65	22	43
금남면	-	-	-				102	33	69
장군면	-	-	-				61	15	46
연서면	-	-	-				102	31	71
전의면	-	-	-				102	53	49
전동면	-	-	-				131	58	73
소정면	-	-	-				42	11	31
한솔동	-	-	-				16	6	10
도담동	-	-	-				157	56	101
아름동	-	-	-				25	7	18

자료: 2016 세종통계연보(남녀수 및 읍면동별 남녀수는 미산출)

#### (4) 가구유형별 추계가구

- 아래 표는 전국 한부모가구와 세종시 한부모가구의 추계다. 전국의 한부모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가운데 한부모여성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42] 전국 한부모가구 추계

(단위: 가구)

연 별	전체 <sup>35)</sup> 가구수	한부모가구			
		합계	부+자녀	모+자녀	조부모+손자녀
2012	18,118,513	1,907,879	425,991	1,370,384	111,504
2013	18,388,488	1,991,621	462,096	1,418,226	111,299
2014	18,704,975	2,080,957	499,539	1,470,298	111,120
2015	19,012,895	2,163,636	535,123	1,516,859	111,654
2016	19,284,671	2,203,250	552,895	1,537,550	112,805
2017	19,523,587	2,241,004	569,619	1,557,134	114,251
2020	20,174,317	2,332,131	614,204	1,599,368	118,559
2025	21,013,656	2,427,604	671,943	1,631,381	124,280
2030	21,640,586	2,481,210	715,777	1,634,384	131,049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전국적으로 한부모가구가 늘면서, 세종시도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엄마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구가 한부모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것처럼 미래에도 그렇게 유지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표 3-43] 세종시 한부모가구 추계

(단위: 가구)

연 별	전체 <sup>36)</sup> 가구수	한부모가구			
		합계	부+자녀	모+자녀	조부모+손자녀
2012	39,151	4,094	1,216	2,568	310
2013	43,736	4,390	1,348	2,702	340
2014	54,396	5,408	1,689	3,343	376
2015	72,716	6,834	1,763	4,654	417
2016	85,199	8,190	2,097	5,633	460
2017	102,551	10,073	2,564	6,977	532
2020	142,449	14,895	3,736	10,416	743
2025	165,978	18,523	4,614	12,891	1,018
2030	186,541	19,878	4,973	13,488	1,417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35) 전국의 전체 가구수

36) 세종시의 전체 가구수

- 한부모가구 구성원을 중심으로 볼 때, 전국과 비교해 아버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세종시 한부모의 비율은 조금 높았고, 어머니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세종시 한부모의 비율은 5.26% 낮았다. 대신에 아버지와 미혼자녀에 다른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과 어머니와 미혼자녀, 그리고 다른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전국과 비교해 각각 2.17%, 3.47% 더 높았다.

**[표 3-44] 2016년 세종시 한부모가구 현황**

(단위: 가구(%))

행정구역별 (시도)	한부모 가구_계	부+미혼 자녀	모+미혼 자녀	부+미혼자녀 +기타가구원	모+미혼자녀 +기타가구원
전국	1,539,868 (100)	281,680 (18.29)	950,867 (61.75)	114,092 (7.41)	193,229 (12.55)
세종 특별자치시	4,250 (100)	761 (17.91)	2,401 (56.49)	407 (9.58)	681 (16.02)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6년 인구총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통해 세종지역 한부모가구의 경제상황을 살펴보았다. 한부모가구 가운데 전국과 세종지역 모두 어머니와 자녀로 이뤄진 모자세대의 수급율이 70%를 넘고 있다.

**[표 3-45]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대상**

(단위: 가구(%))

가구 특성별	2012		2013		2014		2015	
	전국	세종시	전국	세종시	전국	세종시	전국	세종시
모자 세대	78,333 (75.55)	111 (71.15)	76,270 (75.29)	105 (71.92)	74,925 (74.93)	126 (75.90)	123,497 (74.61)	239 (70.71)
부자 세대	18,820 (18.15)	32 (20.51)	18,366 (18.13)	28 (19.18)	18,362 (18.36)	27 (16.27)	34,538 (20.87)	79 (23.37)
조손 세대	6,533 (6.30)	13 (8.33)	6,663 (6.58)	13 (8.90)	6,706 (6.71)	13 (7.83)	7,492 (4.53)	20 (5.92)
합계	103,686 (100)	156 (100)	101,299 (100)	146 (100)	99,993 (100)	166 (100)	165,527 (100)	338 (100)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2-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4장

# 세종지역 한부모여성 심층면접

- 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 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 4장 세종지역 한부모여성 심층면접

### 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 1. 심층면접 과정

##### 1) 심층면접 참여자 발굴의 어려움

- 세종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한부모를 만나 그들의 경험과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상가족이라는 강력한 사회규범 속에서 한부모가족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참여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가능하면 세종지역의 읍면동에서 골고루 면접참여자를 추천해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청해 총 20명(전동면, 장군면, 연동면, 금남면, 전의면, 부강면, 연서면, 연기면, 한솔동에서 각 2명, 그리고 아람동과 종촌동에서 각 1명씩)을 추천받았다. 각 읍면동에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한부모여성을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결국에는 각 읍면동 행정담당자가 한부모여성 각각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승낙하는 여성의 명단을 작성하여 연구진에게 넘겨줬다. 면접 참여자 발굴에 2달이 소요되었다.
- 명단을 받은 후, 면접자 각각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명이 인터뷰를 거절했다. 처음에 인터뷰 참여의사를 밝혔던 한부모여성들은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되어서’ 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인터뷰 당일에 ‘도저히 안되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 2) 심층면접의 장애물

- 심층면접을 하게 되는 과정에는 여러 장애가 있었다. 첫째는 상당수 면접참여자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도와주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층면접을 지원했다고 했다. 인터뷰를 설명하고, 일정을 잡았다. 혹은 ‘인터뷰’를 기자들과의 만남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한편 대다수의 한부모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규칙적 시간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일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대부분은 한가한 시간대에 상사의 도움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퇴근 후 저녁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진행했다.



## 2. 심층면접 참여자 개요

### 1) 심층면접 참여자

[표 4-1] 심층면접 참여자

심층 면접자	거주 지역	연령	한부모 이유	자녀	직업	전배우자의양 육비지원	주거 현황
사례1	전동면	40	이혼	딸2, 아들1	낮 식당, 저녁 치킨배달(알바)	X	친정
사례2	전동면	45	이혼	아들 2	낮 보육교사, 저녁 식당(알바)	X	친정
사례3	장군면	55	사별	아들 2	식당(알바)	X	친정
사례4	종촌동	39	이혼	딸1, 아들1	공공근로	X	월세
사례5	연동면	50	사별	딸1	식당(시간제)	X	자가
사례6	금남면	39	이혼	딸3	가정집 청소(시간제)	X	월세
사례7	금남면	36	미혼모	아들1	바리스타(구직 중)	X	친정
사례8	전의면	43	이혼	딸1	마트(시간제)	X	월세
사례9	아름동	49	이혼	아들 1	장애인활동보조 및 식당(알바)	X	월세
사례10	한솔동	35	미혼모	아들 1	간호조무사	X	월세
사례11	부강면	54	사별	아들 2	장애인 일자리	X	자가
사례12	부강면	43	이혼	딸1, 아들1	구직중	X	월세
사례13	연서면	46	이혼	딸1, 아들1	사회적 기업	X	월세
사례14	연기면	45	사별	딸1, 아들1	아르바이트	X	자가
사례15	연기면	43	이혼	딸1, 아들1	요양보호사	X	친정

### 2)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 면접참여자가 한부모가 된 이유는 2명은 미혼모, 3명은 사별, 나머지 10명은 이혼이었다.
- 이혼이나 미혼모로 한부모가 된 여성들은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 한부모여성 대부분은 돌봄이나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장

전문적인 일은 간호조무사와 보육교사가 장기 근무를 하고 있었다. 1명은 사회적 기업에서 정규적으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식당 서빙이나 마트 계산원, 요양보호사 등으로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 주거방식은 3명이 대출금이 있는 자가, 7명이 월세, 나머지 5명은 친정부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 한부모여성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다른 한부모와 비교해 심리적으로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혹은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반대로 부모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의 한부모여성들은 심리적·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였다.
- 남편의 사업실패나 질병으로 인해 원가족이나 친척 및 친구들에게 빚을 진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다.
- 한부모 가운데 2명의 장애자녀를 갖고 있었다. 한부모 대다수는 우울상태가 많았고, 면접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거의 다였다. 심리상담을 받거나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 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

### 1. 한부모여성의 생활세계

#### 1) 건강

##### (1) 신체적 건강

- 한부모여성의 경우 경제적·심리적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직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두 개, 세 개의 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어 만성피로와 여러 질병을 갖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게 진단은 안 나오고 나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는 복대 대고 하다가 하루에 진통제를 두 세알 먹다가 정 안되면 이렇게 근육이완제인가 그런 주사 맞고 그렇게 하면서 버티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애들 키워야 하니까.(사례 3)

- 특히 여러 직업을 함께하는 휴식 없는 장시간노동 생활이 길어지면서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 일의 중단과 복귀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로 인한 부상이나 잔병들로 인해 일을 중단했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과로가 축적되는 노동시장으로 나가면서 버는 돈의 대부분이 약값이나 병원비로 지출되는 경우도 많다.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제가 골수염으로 수술도 했고 지금 갑상선저하증이랑 여기 팔에 염증이 생긴 게 자꾸 안 나아서 일단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잠깐 쉬고 있거든요. 다른 직장 알아보려고(사례 7)

애 낳고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몸조리도 아예 못 했어요.제가

어제까지 아팠었어요. (중략) 오른 쪽이 의안이에요. 제 눈이 아니에요. 7살 때 수술해서 안구를 들어내고, 의안을 끼웠어요. (중략) 편두통이 오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기만 했어요.(사례 6)

○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치킨 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1은 최근 일하다 넘어져 머리를 꿰맸다.

저는 뭐 정신없이 아침에 눈 떠서 직장 가서 하루 종일 10시까지 있으니까 10시에 끝나고 또 다른 직장 가서 알바하고 온몸이 다 아프죠. 저는 (사례1)

## (2) 정신건강

○ 인터뷰에 참여한 한부모여성 대부분은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사별이나 이혼의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심리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

정말 큰일이 생기면 재네를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플까봐 걱정이예요.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까봐 걱정이예요. 안 아프고 싶고 웬만하면 약국 가서 사 먹고 굳이 따진다면 내가 아프면 지금 내가 죽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사례 15 )

그냥 우는 거죠. 뭐 그냥 울고나면 좀 낫고 애들 몰래 그냥 우는 거죠.(사례 12)

○ 현재의 어려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한부모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냥 저는 깜깜한 밤 같아요. 느낌이 아 새벽이 언제쯤 오려나, 아침이 오긴 오려나, 그런 느낌 아직도 그래요.(사례 7)

심리상담은 그때 지원이 될 뻔 했는데, 못 되서 돈 내고 다녔고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번 받을 때 마다 그거랑 학교에서 해주는 미술 활동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로인 거 같아요. 차라리 돈 주고 하는게 훨씬 더 정확한거지 와서 대충 그냥 하는 거 같아서(사례 10)

○ 한부모여성의 경우, 불안과 외로움, 현실적 어려움을 잇기 위해 술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다.

술 먹으면 자니까 아무생각 없이 술 안 먹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중략) 병원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 술 한잔씩 먹고 들어와서 자고 우리 딸이 제발 술 좀 먹지 말라고 술 먹는게 제일 싫다고. (중략) 술만 먹으면 내가 무섭다니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성질이 막 올라오니까. 우리 딸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사례 5)

제가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시청에 부탁을 했어요. (중략) 그 정신의학과 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예약을 해주셔서 갔어요. 지금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그런대로 아직까지 약에 의존하니까. 이게 그 잠을 좀 자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못 자요.(사례 6)

○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한계치에 달한 한부모여성들은 자녀와의 동반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된다.

미안하고 제가 어떤 생활을 했냐 하면 지금까지는 힘들게 살았지만, 앞으로 제가 와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평생 울 거 다 울었어요. 그래서 맨날 죽을 생각만 했어요. 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애들하고 소리 소문 없이 죽을까 (중략)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저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까봐, 이미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울음) (사례 3)

- 사례1처럼 정신없이 일을 하는 한부모여성은 자신의 정서적 안정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우울증 뭐 그런 거 앓을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뭐 정신없이 아침에 눈 떠서 직장 가서 하루 종일 10시까지 있으니까 10시에 끝나고 또 다른 직장 가서 알바하고(사례1)

- 사례 15는 지적장애를 가진 친정엄마와 망상을 가진 친정아버지, 지적장애를 가진 오빠와 남동생(국제결혼으로 부인과 자녀가 있음), 지적장애아들과 딸을 책임지고 있다. 모든 가족을 돌봐야한다는 불안으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한 번 먹었는데 하루에 24시간을 살잖아요. 잠을 한 4시간 자잖아요. 4시간이 사라졌어요. 약을 먹으니까 (중략)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완전 잠에 푹 들어갔다가 오더라고요. 정신이 말짱해지고 눈을 딱 떴는데, 개운하구나(사례15)

### (3) 정서적 무기력

- 사별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부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서적 무기력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뭐가 최고 부럽냐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게 제일 부러워요. 그게 별게 아닌 거 같아도 그게 가족이 다 갖춰 있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꼭 내가 원해서 된 것처럼 그게 제일 행복이고, 제일 부러운 거 같아요. (중략) 그 존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중략) 매순간 생각이 저는 계속 같이 지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들 사는 것 보다 15년을 살았어도 30-40년 산 것처럼 일도 계속 같이 했었

고 그래서 그런데 계속 생각만 하면 더 힘드니까 안 하는게 나은 거 같아요.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요.(사례 14)

## 2) 직업

### (1) 여러 개의 직업

- 전문적인 직업이 아닌 경우, 한부모여성 대부분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한부모여성들은 두 개 혹은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만 생활과 자녀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또 다른 일도 하고요. 낮에는 어린이집 가서 일 하고요. 밤에는 아는 언니네 주방가서 일을 하던지 투잡에 뭐 쓰리잡까지 했죠.(사례 2)

### (2) 불안정 노동

- 15명의 한부모여성 가운데 그나마 가장 전문적인 직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다. 그나마도 보육교사는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기본으로 한다.

6시에 일어나서 씻고 나오면, 7시 반부터 일 하죠. 7시 반부터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육실에서) 7시까지. (12시간 넘게 근무하시는 거네요. 그럼 바로 집에 가시나요?)아뇨. 집에 안 가고 알바하죠. 여기 언니네 가서 주방일 봐주죠. 보통 12시 1시? 원래는 더 늦게 끝나는데, 또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니까. (그럼 집에 가면 몇 시에요?)2시 씻고 그러면 2-3시 되요. 그러면 뭐 바로 잠이 오나 잠깐 누웠다 다시 나오는 거죠.(사례 2)

- 대부분의 한 부모여성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투잡, 혹은

쓰리잡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낮에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 또 알바를 했어요. 치킨집에서 서빙같은거 또 밤 10시 넘으면 다른 직장에 가서 알바하고 배달일 하고 있거든요. 뭐 정신없이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종일이에요.(사례 1)

### (3) 급여

- 보육교사일과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병행하는 사례 2의 경우, 친정부 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두 일의 급여를 다 합해도 한달에 약 200만원이 간신히 넘는다.

얼마 안되요. 알잖아요? 어린이집 얼마 받는지. 알바는 70-80만원. 최저임금이죠.(사례 2)

- 급여가 높게 측정이 되면, 수급이 끊기기 때문에 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7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선에 맞춰서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었으며,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도 급여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장들한테도 수급자는 무슨 죄인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그만큼 주면서 신고를 못하면 세금 혜택을 못 받게 하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써주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면 거기도 땀땀하고 우리도 땀땀하고 무슨 죄인 같아요.(사례 3)

## 3) 주거

### (1) 친정 부모의 집

- 상당수의 한부모여성가족은 주거문제를 친정쪽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친정부모나 할머니 등 집 소유자가 돌아가시거나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는 없었다.



아뇨. 저희 할머니 집이요. 그런데 할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맞아들이셨으니까 물려받은건 아니죠. 아직까지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집 걱정은 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글썄요. 그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사례 1)

## (2) 들어가기 어려운 임대주택

- 한부모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주거 관련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여성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순서나 조건 등이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임대주택 관련 정보의 부족이 한부모여성의 주거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아무래도 시내에 사는 게 더 낫죠. 애들이 어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제가 수급자라서 행복도시 도란마을 8단지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빠진다고 이게 지금 이게 거의 2년 째거든요. (중략)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데, 1차에서 된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는 거고, 2차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빠져야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2차예요?) 아뇨. 저는 3차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서류를 잘 못 넣어서 1차에서 떨어졌었던거든요. (중략)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안 해줘서 서류 신청을 해라고 해서 그렇게만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 3차에서 제가 세대주로 올려서 그래서 3차에서 된 거예요. 3차에서 1순위로 됐는데 지금 언제 들어갈 지는(사례 1)

## 4) 자녀양육과 교육

### (1) 친정부모의 도움

- 한부모여성은 친정부모의 도움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장시간 노동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식사와 돌봄은 친정부모의 몫인 경우가 대부분였다.

일단, 일을 해야 하니까요. 아이들 때문에 걱정스럽고 (중략) 제가 밤  
낮으로 일을 해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애들이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학  
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중략) 월급은 월급대로 하고 투잡비는 학  
원비로 축내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께 손 벌릴 수도 없고 알아서 해  
야하는 거니까.(사례 2)

## (2) 친정가족의 지지와 배려

- 친정부모의 정신적 지지와 경제적인 도움은 한부모여성의 생활에 없  
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친정식구들한테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사람이 좀 무서워지더라고  
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  
아요. 그런데 가족은 기대는 것에 한도가 없고 엄마 아빠가 계셔서 너  
무 다행이에요.(사례 14)

엄마가 없었으면,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중략) 우울증 걸리거나 아  
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 같아요. (중략) 엄마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채워주셨어요. 제가 버는 게 얼마 없으니까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  
죠. 지금까지도(사례 10)

## (3) 친정가족의 도움이 없는 경우

- 친정의 지지와 도움이 없는 경우 한부모여성들의 삶은 더 불안해졌  
다. 특히 친정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혼을 한 경우, 한부모여성들이  
의지할 등지를 잃은 것처럼 경제적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  
고 있었다.

이혼하기 전부터 인연을 끊었어요. (중략) 차라리 징징거릴 꺼면 연  
락하지 마라 저 솔직히 애 배속에 가져서 아빠한테 가려고 했었어요.  
애들은 또 애들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려고 했었는데 제천 터미널에서  
딱 막아버린거예요. 오지말라고 저 진짜 갈 차비밖에 없었거든요. 저 3

일을 그 터미널에서 물만 마시고 잠자고 그랬어요. 아빠가 전화도 안 받고 내가 그랬어요. 그럼 차비만 해달라고 삼척으로 내려갈게 차비만 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절대로 연락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돈 5만원 불여주더라고요. (중략) 언니랑 남동생도 연락 끊었어요. (중략) 내가 못 사니까 똑같더라고요. (사례 6)

- 친정의 지지와 도움이 없는 경우 생활이 안정되는데 여러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주거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컸으며,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미혼모들은 쉼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듯이,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가 말하자면 조금 되면 준비가 되면 나갈 수 있게 애들 데리고 집이 없다는게 제일 크죠.(사례 11)

- 또한 친정가족의 도움이 없는 한부모가정의 여성들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족관계가 이혼이후에 악화되는 것으로 한부모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재가를 하셨죠. 그래서 엄마하고는 좀 서먹서먹하죠(사례 8)

남동생들하고는 안 맞고 언니하나 있는데 거기는 또 형부한테 눈치 보이고 다른 친척들한테도 안가요 오래됐고 서먹서먹하고 어디 의지하고 할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사례 5)

#### (4) 아는 사람의 도움

- 한부모여성들은 주변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별개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이웃 주민이나 직장동료들의 호의와 선의가 한부모여성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 애들이 저렇게 자랄 수 있었을 거 같아요. (중략) 그래도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선생님들도 잘 만났고 좋은 분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말들을 해줬고. (중략) 학교를 전학을 시킬 수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 일단은 멀잖아요. 그런데 우리집 가서 밥 먹자고 밥 한끼라도 챙겨주고 많이 고마웠던 거 같아요. (사례 2)

- 출산후 곧바로 출근을 해야했던 사례3의 경우, 수유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은 함께 일하는 동료였다. 이처럼 한부모여성가족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도움은 동료와 아는 사람 등, 지역 사회구성원의 선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뭐든지 일을 했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산업이라는 데를 들어갔지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 때 당시에는 작은애가 젖을 먹는 시기여서. 아호. 젖 부르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가서 집에서 짜 놓고. 또 화장실가서 짜 내고. 이렇게 하고 일을 하다가. 그런데 여기서도 일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조치원에 가면 ○○○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제사음식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임금이 굉장히 약해요. 거기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젖이 너무 아프니까 수건을 하루에 4개씩 가지고 가면. 그렇게 짜면 나와요. 그런데 또 배는 왜 이렇게 고파요. 그런데 젖이 너무 불면 젖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반장한테 얘기 했죠 반장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진작 얘기를 하지 나가 먹었으니까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사례 3)

### (3) 사춘기 어려움

- 한부모여성의 경우 자녀의 사춘기가 힘들었고, 두렵다는 표현이 많았는데, 이는 엄마 혼자서 아이의 심리적-정신적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특히 아들을 둔 한부모여성의 경우,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남편의 부재를 더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교

육 시에 사춘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성별에 따른 상담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애들이 또 엄청 세게 오기도 했고, 중2 병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중략) 나이키 운동화 같은 거 자기도 신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갖고 싶다고 말은 못하고 그런 게 스트레스 였던 거 같아요. 얘기는 못하는데 엄마는 다 알잖아요. (중략) 일단은 내가 애들한테 관심을 못 가지니까 그게 제일 애들한테 미안한 거 같아요. (사례 2)

걱정이에요. 고3인데 졸업이라도 해야 하는데 (중략) 학교를 이틀만 안 가면 유급이에요. 그런데다가 남자친구 까지 있다니까...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건 큰 애고, 작은 애는 저처럼 우울증이 생길까봐 걱정인거고 작은 애가 저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올까봐 그게 걱정이에요.(사례 6)

아들을 키우는게 너무 힘든 거예요. 딸은 되게 순한데 아들은 뭐 그렇게 사고를 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벅차더라고요.(사례 11)

#### (4) 전 남편의 무관심

○ 인터뷰를 진행한 한부모여성 가운데 한 명을(이혼 후 4, 5개월만 양육비를 받음) 제외하고 양육비를 받은 여성은 없었다.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여성들은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한 경우도 많았고, 연락 자체가 싫어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결혼생활 중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한부모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한부모여성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이혼한 이후에 연락한 적 없어요. 어디서 사는지 소식도 모르고요. (중략) 생활비도 받아본 적 없는데, 양육비도 전혀 (사례 7)

양육비와 위자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한 이혼이었어요. 그냥 애만 데리고 나왔죠.(사례 6)

양육비는 무슨 지금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인데요. 그쪽도 지금 힘들다고 알고 있어서(사례 12)

딱 한번 50을 제대로 줬고, 아이 둘이니깐 50을 주기로 했는데, 딱 한 번 그렇게 했고, 평균 30. 한 4-5개월? 정도 였나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까지 하면 한 달 구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하려고 하니깐 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사례 4)

## 2. 한부모여성의 사회적 관계

### 1) 한부모가족이 된 이유

#### (1) 경제적 이유와 폭력

-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는 다양했다. 사별을 제외한 이혼의 경우, 경제적 이유는 늘 폭력을 동반했고, 이외에 외도와 자녀에 대한 무책임도 많았다.
- 사례1의 경우, 남편과 사별후 재혼을 했다. 재혼을 했지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으로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을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해서 무책임 한데다 폭행까지 맞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혼 한 거죠.(사례1)

#### (2) 사업실패와 가족 유기

- 사례 8의 경우,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라지면서 이혼을 하게됐다. 경제적인 이유도 컸지만, 어려운 상황에 자신과 아이만 남겨놓고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제일 큰 건 경제적인 부분 아빠가 일단 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업을 실패를 했어요. (중략) 1년 넘게 연락이 안됐어요. 아이하고 혼자 있으면서 여기 저기서 차압도 들어오고 혼자 감당하면서 아, 이 사람은 가장으로서 책임이 없구나 그래서 정리를 했죠. 부부관계는 신뢰잖아요. 그런데 한번 깨지니까 그랬어요.(사례 8)

### (3) 경제적 무능과 폭력, 그리고 의처증

- 이혼한 부모, 재혼한 아버지의 무관심과 새엄마가 싫어 빨리 결혼한 사례 6은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남편의 폭력과 의처증에 시달리다가 집을 나왔다.

일을 하긴 했는데, 중간 중간 사고치는 일이 많았어요. 사업한다고 하고 돈 빌려주고 돈 떼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많이 싸웠었어요. 의처증까지 있고 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의처증에다가 어쨌든 많이 싸웠어요. 애들 때문에 참고 있다가 자살 시도 까지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중략) 방에 들어가면 숨을 잘 못 쉬어요(사례 6)

### (4) 경제적 무능과 외도, 자녀 학대

-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남편의 외도까지 참았던 사례4는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과 헤어졌다.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인 부분, 버는 것 보다 혼자서 쓰는게 더 많으니까 제가 애들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생활비 하고 그런 것보다도 애를 때려요. (중략) 너 오늘 죽어봐 하면서 막 때리고. 처음에는 저도 말리니까. 더 더 많이 때리길래. 정말 정말 가슴 아팠어요. 건너방에서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 (중략) 중상을 입을 정도는 아닌데, 엉덩이를 밀대, 몽둥이, 알루미늄, 철사, 옷걸이 몇 개 몽쳐서 그런 것들이 제일 (사례4)

## (5) 경제적 무능과 자녀에 대한 무책임

- 일을 하면서 대학도 들어갈 생각을 하던 꿈꿨던 사례7은 탕화를 그리던 화가 남편과 만나 살다가 헤어졌다. 아이를 짐처럼 여기며 결혼신고도 출생신고도 원치 않는 남편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컸다.

그림도 잘 그리고 실력도 좋은데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을 안 내키면 한 달 넘게 붓을 안 잡아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생활비가 없는데도 살면서 돈을 벌어서 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중략)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낳고 4개월 100일 지나서 헤어졌어요. 자기는 아기 키울 능력이 안되니까. 만약에 제가 안 키운다고 하면 고아원에 갖다 준대요. 애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진 거죠.(사례 7)

## 2) 가족관계

### (1) 여유가 있는 친정부모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정부모를 둔 사례 14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대학을 졸업후 한번도 직업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사례14는 자녀의 대학학비나 추후 필요할 경우에 형편이 좋은 부모와 형제자매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친정 부모님한테도 애가 이렇게 원하는데 엄마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제가 그랬죠. 도와달라고 대학교 들어가서 학자금 없으면 엄마아빠 언니들 동생들이 한번씩 내달라고. 그랬어요.(사례 14)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원가족을 가진 한부모여성들은 원가족 인근에 살면서 도움을 받고 있다.

저도 사실은 이 지역을 떠날까 떠나야지만 내가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굳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



가 우리 엄마 아빠 계신 곳에 내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서 버티고 있는데 바로 옆에 언니 땅이 있어요. 언니가 〇〇계장으로 있을 때 사놓은 게 있어서 언니 나 그 옆에 많은 돈은 아닌데 조그만 거 하나만 사줘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사 놓은 집이었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그래요. 나 엄마 옆에서 엄마 아플 때 병수발 들어주면 엄마가 나 줄 꺼지? 그래요.(사례 14)

## (2) 해체된 가족관계

- 사례6의 경우는 이혼한 부모와 사이가 나빠졌고, 결혼 후 형제자매와도 관계가 없다. 이혼 후 의지하려했던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 원가족에 대한 믿음도 없어졌다.

거기도 연락 끊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내가 못 사니까 똑같더라고 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배운게 그것 밖에 없어요. (사례6)

- 사례9는 남편의 사업 때문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서, 친정식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엄마로부터 동생돈을 갚지 않는다고 욕을 먹은 후 만나지 않고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옛날 시골 사람들은 뭐. 정이 없잖아요. 그것도 내 동생 돈 때문에. (엄마는)저 안 좋아해요. 망할 년이니. 욕이나 하고. 동생 돈 떼먹었다고. 다들 떼먹었다고 얘기 하거든요. (사례9)

## 3) 정서적 지지

### (1) 자녀와의 여행

- 삶의 여유가 없었던 한부모여성들은 자녀와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

한번도 가 본 적 없어요. 시간도 안 맞고 주말에만 만나니까. 또 애 네들은 친구들도 만나고 해야 하니까. (사례 2)

## (2) 자녀의 가출

- 남편과의 이혼 후 자녀만을 믿고 의지하던 한부모여성에게 자녀의 가출은 충격이다. 사례 4는 외도와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헤어진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이혼과 함께 새로운 지역, 좁은 집으로 이사온 것에 대해 불만을 갖던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졌다.

밤에 집을 나가서 ○○까지 친구집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때는 정말 제가 몰랐어요. 메모 해 놓고 엄마 나 찾지마, 일요일에 들어올게 하고 금요일 밤에 나갔는데, 아이가 메모를 남겨놓고 사라진 거예요. 설마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가 밤 11시가 넘었으니까. 기다렸는데(사례 4)

- 이혼과 함께 정상가족이라는 제도 밖으로 나온 한부모여성이 경험하는 자녀들과 갈등은 힘든 부분 가운데 하나다.

아이가 원망이 많이 커요. 엄마 때문에 나 이사 와서. 그리고 남자애라서. 제가 사는 집이 17평인가 18평인데, (중략) 좁은 데 살아보니까, 친구들은 다 40평 대, 30평 대, 그걸 눈으로 보고 안 거예요. 이사가자고 속 썩이고, 나 첼로 사줘. 몇 백만원짜리 사줘. 실제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 능력 안 되지? 엄마 속상하게 하려고, 그런 걸로 많이. 굉장히 싸웠었어요. (사례 4)

## (2) 친구들

- 한부모가 된 여성의 경우, 오랜 친구들보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로부터 더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친구들이야 뭐 그렇죠 끼리끼리 만난다고 우리 나이대에는 이혼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수다 떨고 밥 먹고 놀러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사례 2)

○ 유년시절을 함께 한 친구들이 오히려 불편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너무 잘 아니까. 친구들이 불편한 게 있죠. 사회에서 만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편하죠. 친구들 만나면 재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저러니까 혼자됐지 하면서 흠집을 잡으니까 친구들은 있어요. (사례 2)

#### 4) 사회적 안전망

##### (1) 수급자 자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여성의 경우, 기초수급자로 일정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수급자의 자격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었다.

수급자거든요. 수급자인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 작년에 저희 집이 좀 외진 곳에 있어서 밤에는 버스 타고 애들이 버스타고 더군다가 여자애들이 학교를 시내로 다니니까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늦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불안하고 그리고 아기가 꼬맹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엄마도 갑자기 편찮을 수도 있고 그 때마다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닐 수도 없고 택시비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수급을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우리나라는 정책이 정말 개법이에요. (중략) 결국은 밤에 식당 끝나고 밤에 아르바이트 하는게 차로 배달하는 일 이거든요. 그래서 수급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사례 1)

○ 경제적 자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들은 정부의 수급기준이 한부모여성과 자녀, 가족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마련되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주거급여가 113,400원. 그것도 오른 거예요. 그때는 갓 10만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으로도 288,710원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1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왜 깎였냐고 아 몰랐어요. (중략) 마비증상이 와서 그래도 조금 낫길래 조금 일을 더 했는데 75만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10만원이 깎였더라고요. (중략) 70만원어치만 일만 하면, 결국은 국민들을 더 게으르게 하고 일을 안해도 돈이 나오는데 돈이 나오는데 뭐하러 땀나게 일을 하냐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나 나는 이거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우리들한테 그러면 내가 일을 턱걸이로 해야 되는 건가(사례 3)

- 국민연금을 넣어 온 경우,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것과 수급자가 되는 것이 양립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방식은 한부모여성들의 자립에 대한 의지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처음에 회사에서 쪽 다녔으니까 국민연금을 제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두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중략) 수급자를 선택할래 국민연금을 선택할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잖아요. (중략) 아이들이 어리고 노후에는 아무것도 없지않나 했더니 대뜸 막 야단치면서 저금하면서 살꺼냐고 저금을 하면서 수급자를 할 거냐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중략) 국민연금 넣던 걸 다 포기를 했죠. 그래서 수급자가 되면 뭐가 나은 건데, 이걸 선택하라 뭘 선택하라 (중략)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그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해라 (사례 3)

## (2) 빚

- 상당수의 한부모여성은 빚을 갖고 있었다. 한부모가 될 당시 남편의 병원비, 혹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한부모가 된 이후에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는 갚았고 그런데 지금 카드 빚 대금 그게 이제 빚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례 1)

- 사례 3의 경우, 질병으로 남편과 사별했다. 사업실패로 인한 빚과 병원치료비로 진 빚이 많고, 상당부분은 형제자매에게 빌려 가족간 사이가 어색한 상황이다.

가장 도움을 많이 준 게 엄마 아버지는 말 할 것도 없고 여동생하고 남동생... 이렇게 있죠. 동생들이 카드를 계속 자기네 카드로 해서 그걸 계속 갚아줬어요. 제가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중략) 그 빚을 거의 한 7~8년 갚았어요. 그래서 말은 안해도 별로 안 반가워해요. (사례 3)

### (3) 사회적 편견

-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보고 이 외의 의 형태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한부모여성과 그 가족을 더 어렵게 하고 있었다.

말 그래도 한부모잖아요. 편견 안 두고 같이 똑같이 그런 좀 살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 애들이 들었던 말이 너네 아빠 있어 없어? 이런 얘기들 애네는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나봐요. (중략)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생님이 나 뭐 아무래도 애한테는 신경이 덜 써지잖아요. 일단 애는 없는데 그리고 애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애고 사회가 그렇잖아요. 일단은 애 됴됨이를 보는게 아니잖아요. (사례 2)

- 특히 최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패드립<sup>37)</sup>’은 한부모가족 아동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선생님 상담이 있어서 학교에 갔는데 아빠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

37) ‘패륜적 드립’의 줄임말. 디씨인사이드에서 태생된 단어로서 부모님이나 조상과 같은 윗 사람을 욕하거나 개그 소재로 삼아 놀릴 때 쓰는 말(네이버 사전, 2017년 8월 30일 검색)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빠가 미국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1년에 몇 번 오니 했더니 몇 번 안 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아빠 돌아가셨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둘이 앉아서 너네 아빠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그럼 다른 아이들이 깔봐 남들이 함부로 하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마. 그리고 아빠 얘기를 꺼내지마 하면서 동생하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사례 3)

#### (4) 한부모 자립보조금

- 한부모여성들은 자립에 대한 욕구가 컸다. 가장 시급한 주거 및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주장하기도 한다.

최소 1년이상 국가에서 한부모 가정 자립보조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이자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시 1% 이자처럼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대 1년 또는 2년이라는 자격마감기간을 준다면 나중에 갚지 못할정도로 대출금이 커질 부담도 없을거 같아요. 단 원금상환 기간을 많이 여유있게 책정해준다면(최대 10년분할 상환 선택 가능 등) 한부모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사례4)

### 5) 한부모여성의 미래기획

#### (1) 개인 주체의 삶

- 한부모의 여성의 경우, 대다수의 자신을 위한 삶의 여유 혹은 미래에 대한 기획을 할 여유는 없다. 생계와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문제 때문에 노후에 대한 대비 등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 미래, 내 시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애들 아직 우리 작은 애도 해야 하고 지금은 아직 제가 정착이 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중략) 아직은 아이를 가르쳐야 하고 애도 어느 정도 할 때 까지는 뒷받침 해줘야 하고 (사례 2)

## (2) 혼자 살기

- 이혼을 한 한부모여성의 경우, 이전 결혼생활에서의 불행한 경험 때문에 불안정한 양부모보다는 현재가 더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서는 재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재혼을 하지 않고 자녀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응답한 한부모여성이 대다수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다시 또 만나도 남자라는 게 정말 데여서 애들이 중요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래보다는 어쨌든 애들을 키워야 하니까요. (사례2)

- 한편 한부모여성들은 남편 없음을 자유로운 삶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의 자유로움을 유지하고 싶은 경향이 많았다.

지금 좋아요. 자유롭게 좋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좋아요.(사례 8)

- 특히 딸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여성의 경우, 성인남성을 집에 들인다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었다. 아동 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재혼을 하려니까 딸도 걱정되고,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좋더라고 애들 정서에도 도움도 안되는 거 같고 차라리 혼자서 사는 게 낫겠더라고 마음 편하게(중략) 딸도 누가 남들이 오는 게 싫대. 왜냐면 여태 남자하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색하고 싫은 거야. (사례 5)

- 한부모여성의 경우, 재혼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남성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 외로움보다는 상처받지 않기,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이게 사람 한번 크게 데고 나니까. 사람을 쉽게 믿기가 힘들더라고  
요. 특히 남자는 더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례 7)

남자들 다 똑같다고 그만큼 데었으면 됐지 혼자가 나아요.(사례 6)

### (3) 자녀 교육에 대한 기획

- 한부모여성의 경우, 자녀가 자신의 인생에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자녀는 존재가치로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보험에 대한 투자는 첫 번째가 된다.

일단은 어쨌든 애들을 저기를 해놔야 하니까 개네부터 해놔야 졸업  
이라도 하고 해야 취업을 해서 본인들이 자기 앞길을 해나가야 하잖아  
요. 아무리 힘들고 남한테 말을 못해도, 빛을 내서라도 애들은 다 가르  
쳐야 한다는 생각(사례 11)

지금도 사교육비 장난 아니게 나와요. 어쨌든 아들이라는 생각이 많  
아서 나중에 가장이 되잖아요. 한 지붕의 기둥이 되야 해서 정말 어느  
위치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보내요. (중략) 그런데 저는  
애한테 들어간 돈은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서. 제 월급에서  
5-60% 쓰고 있는 거 같아요.(중략) 아이만 잘 될 수 있다면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사례 10)

### (4) 자녀 보험

- 한부모여성의 경우, 현재와 미래의 불안감으로 인해 보험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았으며, 다른 부분에 비해서 보험에 대한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보험은 이제 들어봤어요. 사실은 그전에 보험도 들어 봤다가 해약  
했다가 손해가 많은데도 몇 번을 그랬어요. 힘드니까 애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보험이라도 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하면 나중에 진짜 살면서 그런 게 없으면 더 힘드니까 그래서 들었다  
다 해약했다 들었다 해약했다 반복 그랬는데,(사례 11)

애들 보험은 일 인당 12만원인가 13만원 (중략)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다 보니까 보험은 내가 돈 안 아끼고 한다고(사례 2)

### 3. 장애자녀를 돌보는 한부모여성의 어려움

#### 1) 장애자녀를 돌보는 한부모여성의 하루

○ 사례15의 하루는 일과 가족이라는 영역을 분리할 수 없다. 요양보호  
사라는 일을 갖고 있는 사례15는 오전에 3시간 요양보호일을 한 후에  
오후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오빠, 남동생, 그리고 엄마, 남동생  
의 아이들까지 돌보며 집안일을 하고 있다.

어르신 집에 가서 오전에 3시간 뛰고 오후에는 애들 쫓아다니고. 제  
가 지금 오빠 지적장애에 내 동생 지적장애. 애가 남자앤데 다문화에  
요. 다문화인데 조카들이 다 여기 다녀요. 올케가 돈을 벌려고 해요.  
내 동생이 일이 있다 없다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생활비가. 그리고 올  
케는 한번 하면 열심히 하니까. 대신 애를 봐달라. 보통 다문화는 친정  
엄마가 애들 많이 봐줘요. 그런데 여기는 친정엄마가 애를 볼 사람이  
아니예요. 우리엄마가 지적장애거든요. (중략) 오후에는 애들 봐야하고.  
일 갔다 와서 집안일 해야죠. 밥 먹고 점심 준비하고. 시간이 되면 애  
들 데리고 왔다갔다하고. 저녁준비하고. 뭐 계속. 하루가 이렇게 돌아  
가요(사례15)

○ 사례15의 경우, 한번도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해본적이 없다고 한다. 장  
애를 가진 자녀뿐만 아니라 원가족도 함께 돌봐야 한다. 함께 사는  
부모님과 오빠, 남동생가족(남동생과 부인, 자녀)과 자신의 자녀 두

명 총 9명 가운데 장애가 없는 가족은 사례15 본인과 딸,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으로 온 남동생의 부인과 그 어린자녀뿐이다. 그나마 남동생의 부인은 돈을 벌러 나가고, 딸과 조카가 학교와 유치원에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안의 모든 일은 사례15가 책임을 진다.

- 사례9는 파산을 한 남편은 감옥에 갔고, 혼자서 장애를 가진 아들과 살고 있다. 사례9는 아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 감옥에 가기 전에 남편은 아들을 돌봐주지 않았다.

일주일 입원을 해야 한 대요. (중략) 달팽이관이 손상을 입어서 어지럽거든요. 어디 다녀도 짊을 때도 많고 약간 지금도 계속 먹어요. 약을 처음에 알았을 때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천장이 팽이 같이 돌아요. 저절로 악 소리가 나요.(사례 9)

## 2) 장애 자녀 돌봄

- 자폐진단을 받은 아들과 살고 있는 사례9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 아들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공공공간에서 옷을 벗기 때문이다. 보통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외식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끄러운 걸 모르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냥 불만으로 옷을 막 벗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눈치는 있는 거 같아요. 사람 많은 데서 그러거든요. 옷을 막 벗어요. 바지를. 그러니까 외출을 잘 안 하고 어디를 가도 사람 잘 없는 데만 외식은 전혀 못 하고요. (사례 9)

- 장애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잠시 한 눈을 팔 경우 아이가 집을 나가 집을 찾아오지 못하거나 사고의 위험도 있다.

자폐아가 성향이 있거든요. 성향이 되게 반발성이 심하고. 수준이 3

살짜리에요. 차도 위험한 걸 몰라요. 지금은 덩치가 크니까. 저보다 크 거든요. (중략) 현관문은 이제 단추를 눌러야 열리는 자동문도 있더라고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런 게 아니면 그런 걸로 교체 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해요. 어차피 이사 갈 때 해야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좋은 거 같아요. 수준이 낮으니까 단추만 누르면 되는 걸 문 열 때는 애 안 보게 이렇게 해서 딱 나오고 하면 모르긴 하더라고요. (사례 9)

○ 이런 이유로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는 등학교시에도 자녀를 픽업하는 일을 어려움이 있다.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재 때문에 학교는 버스타고 못 가요. 혼자 못가요. 헤매고 다녀요. 집으로 바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동네 방네 다 설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차가 있어야 돼요. 차가 가면 20분이래요. 그런데 뭐. 한 두대 밖에 없고. 이제는 학교에서 오는 거 혼자 오지만, 어차피 갈 때는 혼자 데리고 가야 해요. (사례 15)

## 2) 장애 자녀의 미래

○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학교를 졸업한 이후 자녀의 직업과 사회적 독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다.

거기는 고등학교까지 짝 붙었어요. 유치원부터 짝 (직업교육같은 것도 해주나요?) 네. 그것도 붙었어요. 그런데 그건 수준 되는 애들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개는 못 갈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마들도 그렇고 굉장히 암담한 거거든요. 주간보호센터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간보호센터가 따로 있어요?)거기는 어른들 가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내려고요.(사례 9)

## 4.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지원정책

### 1) 한부모여성의 어려움

#### (1) 경제적 지원의 문제점

-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주거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 임금노동에 대한 대가가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한부모여성들의 근로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노동을 할수록 소득이 늘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희망을 갖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이 늘면 지원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한부모여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정소득 이상을 획득할 수 없는 제로섬게임과 같은 상황이었다.

제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소득이 있다고 70만원?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허리가 많이 아프면 이쪽을 쓰지를 못했어요. 마비증상이 와서 그래도 조금 낫길래 조금 일을 더 했는데 75만원인가 얼마 받았다고 10만원이 깎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그럼 수급자들은 딱 그거 주는 것만 먹고. 70만원어치만 일만 하면, 결국은 국민들을 더 게으르게 하고 일을 안해도 돈이 나오는데 돈이 나오는데 뭐하러 땀나게 일을 하냐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나 나는 이거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우리들한테 그러면 내가 일을 턱걸이로 해야 되는 건가 (사례 4)

- 한부모여성들은 현재의 지원정책으로는 수급자인 한부모여성들이 수급자를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니면 정부가 한부모여성 및 가족이 수급자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예를 들어서 몇 인 가족에 얼마,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헤어나는 거예요. 수급자가

다시 벗어났다가 다시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중략) 사실 그 금액도 너무 어중간해요. 그 금액으로는 그냥 딱 그만큼만 살리는 거잖아요. (사례 11)

- 한부모여성 및 가족의 자립을 위해서는 남편으로 인해 생긴 빚을 탕감 혹은 장기대출로 갚도록 하거나, 지원제한 소득 수준을 높이고, 저축이 늘면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플러스가 되는 자립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 경제적인 거죠. 뭐,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가서 (중략) 자기가 사업한다고 하다가 집을 나가서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잠깐 나갔다 온다고 바람 쐬고 온다고 했는데, 빚쟁이가 한 둘씩 오면서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례 13)

남편 빚이 16년 동안 꾸준히 갚았는데도 지금 2-3천 남았어요. 어떻게 안됐대요. 모든게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신용불량자까지 되고.(중략) 5천 갚았어요. 악착같이 열심히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했나 싶은 (사례 12)

-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면 대부분의 지원이 사실상 끊긴다. 그러나 학자금이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애들이 미성년일때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혜택보고 그런건 없더라도 어차피 저는 한부모잖아요.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여전히 한부모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례 2)

- 특히 장애아를 가진 한부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애가 20살인데, 지능이 5살도 안되요. 그러니까 애를 대학에도 못 보내지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그 집에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알바를 하니깐 이 아이가 수입이 있다고 해

서 엄마가 수급자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수당만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알바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정말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해요. 애가 대학교를 간 것도 아닌데 갈 능력이 안되서 못 가는 건데 이걸 정말 잘못 됐죠. (사례 3)

## (2) 주거지원

- 주거지원의 경우, 친정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비가 줄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한부모여성의 경우 친정부모에게 신세를 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거서 독립에 대한 의지가 컸다.

임대주택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친정부모님이랑 살아서 안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안된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말았죠 그게 주택지원금이 같이 일하는 동료 보니까 월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을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사례 3)

- 한부모여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안전이 취약한 주택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렸을 때 제가 일을 했으니까 데리고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럼 식당 뒤에 공터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나가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안 좋은 짓을 했나봐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걸 알아봐서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우리 딸 심리상담을 (중략) 매일 신신당부하고 나가요. 매일 같이 지금도 창문도 못 열게 해요. 내가 있는데도 창문을 열어 놓으면 지가 자꾸 닫으려고 해요. 누가 보는 거 같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좀 환해서 괜찮은데, 겨울에는 더 위험해요. 빨리 어두워지니까요. 그리고 외국 애들이 이쪽에 아파트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는 쪽 혼자 사는 남자들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어도 아직 형편이 안되니까 이사 못 가고 여기 이는 거예요. (사례 5)

### (3) 직업교육

- 한부모여성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직업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직업교육이라는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없기도 하고 (사례 14)

일자리 알아보다 보면 고졸도 있긴 한데 거의 대졸자를 많이 구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대학을 가야하는데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데 할 수 없는 거죠.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아이도 케어하면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사례7)

70만원 더 벌게 그쪽으로 오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쪼그리고 못 앉아요. (중략)저는 못 앉아요. 허리 아파서 고공근로 그런 거 말고 정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저는 70만원 이하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사례 3)

- 자녀 및 동거인의 생활과 교육을 책임져야하는 한부모여성의 경우, 안정적 직업에 진입하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 및 훈련기간 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급여만 있잖아요. 저희도 자립해서 생활하려면 교육을 받고 해야 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럼 생활이 안되니까 계속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하고 그게 제일 걱정이죠.(사례 4)

- 한부모여성의 경우 일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 일을 좀 배워 보고 싶어서 그게 아이를 케어 하면서 어디 얹매이는 일이 아니라서 저희 같은 경

우는 워낙 아이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없어야겠지만, 어디 안 좋아서 아파서 급하게 가야 되면 그래서 메여 있는 곳은 좀 그래요. 제가 마트 일을 선택한 이유도 동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아이가 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다가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건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사례 8)

#### (4) 신체적 건강

-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한부모여성들은 건강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부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같은 건 없어요.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바우처 같은거 아이한테는 있어도, 부모한테는 없는거 같아요. 운동 같은 거 주말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끔 바우처나 이렇게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아니면, 근처에 체육관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사례 7)

#### (5) 심리적 건강

-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한부모여성은 심리상담 및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상담같은거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심리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원들도 잘 몰라서 못 받고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사례 10)

#### (6) 사회적 편견

- 한부모여성의 경우 타인의 시선이 한부모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런 생각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우울감이 심해지는 경향도 보였다.



사람이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 사람들 조차도 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친구가 아닌 거 같아도 아닌 사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돈인 거 같고 그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사례 14)

- 주변 이웃들의 시선이 불편한 한부모여성들은 심리적 안전 및 자존감을 위해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기도 한다.

저는 친구는 필요없어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울음). 다른 사람들 만나게 싫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 밖에 안해요 제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중략)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우리 세종시 있는 사람들은 너무 커 보여요. 난 너무 작고 정말 바닥이에요(사례 6)

- 가장 아빠가 없는 한부모가족의 비정상성에 대한 편견이 강한 지역사회에서 한부모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범위는 위축되기 쉽다.

아빠는? 아빠는 없는 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혼 하셨나,, 뭐 하셨나. 뭐 그런 거 꼬치꼬치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도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다 얘기 해줘요. 애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없다고 그러면 재혼이나 하지 뭐 하지 또 그러면 힘들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런 소리 하고 그 때 그 사람들 얘기 하는 거 보면 사람 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하고 넘겨버리고 그래서 제가 화병 같은 게 생겨버려요. 제가 터놓고 얘기하고 그런 데가 없으니까(사례 5)

## (7) 지역사회에 참여

-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지만, 한부모여성들은 지역사회에 참여할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

여기 앞동에 놀러가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시간을 못 내잖아요. 다른 분들은 남편들이 있고 저기 하니까 그

분들이 다 저기를 하니깐 가정적으로 나는 저기 계속 해야 하니깐 아는 사람이 없지. 이쪽에는(사례 5)

### **(8) 부모교육**

- 자녀의 성장기에 따라서 부모도 성장하고 심리적으로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에 적합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있다. 특히 아들을 둔 한부모여성의 경우,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남편의 부재를 더 느끼고 있다.

큰 애 같은 경우는 아들이다 보니까, 아빠가 해 줄 수 없는 부분들 그런 속 얘기나 그런 것들은 좀 힘든 거 같아요. 내가,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선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그리고 머리가 계속 크다 보니까, 이게 소통도 잘 안되고 (사례 12)

### **(9) 한부모여성을 위한 정책 홍보**

-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부모여성에게 제공되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갑자기 병원에 가서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천천히 갚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다른 쪽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진짜 필요했을 때 어려움 닦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좀 미리미리 이런 제도와 관련된 정보도 일단 책자 같은 걸 놓고 보세요-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 같고요. 집으로 우편물로 정기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아니면 갑자기 바뀐 정보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알려주셔도 좋고요. (사례 7)

## (10) 결혼에 대한 가치관 교육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여성의 경우에는 현실도피를 위한 결혼 이거나, 혹은 아이가 먼저 생기고 결혼을 하는 등, 결혼 전 탐색의 과정이 짧았거나 부모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솔직히 둘 다 어린 나이였고. 제가 그때 26살이었거든요. 그 쪽도 26살이었고. 그 때는 결혼에 대한 생각도 둘다 없었고 그랬죠. (사례 10)

결혼은 도피처였어요. 그냥 집도 싫고 새엄마도 계시고 저희는 아빠하고 따로 살았었어요. 아빠가 방세를 내주다가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생활비도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돈 벌기 시작했어요.(사례 6)

- 특히 결혼관이 성립되거나 성숙하기 이전에 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로 결혼하는 경우, 삶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결혼과정 및 부모 교육 등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제 잘못이었어요. 소개팅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중략) 고지식해서 음 결혼을 할 사람이 아니면 사귀지도 말아야 돼. (중략) 남편을 사귀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다 친구였는데 누구 알지? 누구도 개들 막 고대 킁카, 연대 킁카 인데 개들 둘이 잤어. 그러고도 헤어졌어. 대학생이면 사귀면 다 해 이런 소리 그래서 관참은 건가? 좀 바보 같았죠.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 같아요. (사례 4)

-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성이나 가족의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한다.

성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정말 그 뒤에는 정말 책임을 진다는 정말 힘든 삶이 있는 건데 (사례 10)

## (11) 자조모임

-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자조모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좁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좀 더 넓은 공동체에서의 모임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이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감정을 일정한 거리 유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부정적으로 지인들에게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분석된다.

저도 모르게 저도 그냥 그래서 그 애 엄마한테도 내가 겪은 일 겪지 않게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한 해 한 해 틀리고 한 달 한 달 지나보니까 틀리니까 지금은 돈이 있을 수 있어도 좀 지나면 나도 그때는 많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더라고요. 대전만 해도 좀 지역이 넓잖아요. 세종은 이제 지금 처음 생겨서 넓어진거지 정말 조치원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싫을 거 같아요.(사례 14)

## 2) 한부모 자녀의 어려움

### (1) 자녀를 위한 상담치료

- 한부모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를 잃거나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저희 딸이 심리 치료 받고 있어요. 하도 저기 해서 심리치료 좀 받아야지 안 좋아요. 마음이 이런 데가 이렇게 좀 나한테도 얘기를 다 안하고 마음을 닫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심리 치료 받고 여기 내려와

서 2년 다 되가요.(사례 5)

가장 큰 문제가 남편은 오히려 끝내면서 끝났는데 둘째 둘째가 마음 상처 많이 받아서 제가 많이 못 보듬어 준거 아직까지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많이 힘들어해요. (사례 4)

## (2)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우선

○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한부모여성들은 실제 가계소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교육비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장학금 같은 게 있으면 많은 거 같아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뭔가가 희망이 되고 그러면 애들한테 그런 걸 줘야지 저보단...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사례 14)

나는 지금 바라는 건 경제적인 부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교육 시키는 거 하고 중고등 학교 들어갈 때 그 때 좀 혜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중략)학원 보내는 건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보면 차라리 아기 아빠가 있었으면 다른 애들처럼 다 해주고 싶은데 못 받춰주니까 힘들어서 미안하죠. (사례 5)

애들이 완전히 독립할 때 까지, 직업을 가질 때 까지만 애들이 빚을 안 질 수 있게 국가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사례 12)

## (3) 육아지원

○ 자녀를 양육과 경제적인 활동을 함께 해야하는 한부모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0세에서 10세 미만)에

자녀양육과 돌봄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고 엄마가 양육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여성에게 자녀에 집중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이자 희망으로 보여진다.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지금은 괜찮은데요. 예전에 1학년 2학년때는 집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알아본다고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중략) 아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야근을 해야 하는데 아기 봐 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뒀었거든요. (중략) 저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일하다 말고 애한테 가야하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중요한 일 생겼을 때, 급할 때 아이 맡길 곳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도 일을 했었거든요. 정말 애 맡길 때가 없었어요. 그런 걸 직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못마땅해 하시면 오래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례 7)

딸을 혼자 뒀야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늦게까지는 거의 끝나면, 9시, 10시예요.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학교 갔다가 혼자 와 있는 거예요. 혼자 집에 지금은 크면 혼자 있고 그러지 그 때는 이제 한 3학년 막 그 때까지는 식당에 같이 있다가 같이 오고 같이 들어오고 그랬죠. (사 례 5)

○ 갑자기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긴급으로 양육을 도와주거나, 한부모여성이 아픈 경우,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줄 만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기한테도 미안한 게 갑자기 3일 동안 구토만 하고 너무 아파서 3일 동안 챙겨주질 못했어요. 제대로 어디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사례 6)

#### (4) 지역아동센터의 홍보 및 접근성 향상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한부모여성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부방이 있긴 한데, 월 15만원씩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담이 크더라고요(중략) 아동센터가 있어요? 주변에? (중략) 가까운 곳은 없는 거 같아서 아예 그 쪽으로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사례 7)

아동센터나 이런거 없는 걸로 알아요.(사례 3)

지역아동센터가 뭐예요? 그런거 몰랐어요. 이제 9살인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있고 많이 버릇이 돼서 (사례 10)

#### (5)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함

-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생리대, 우유 등), 지원 방식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세심하면서도 배려있는 방식의 지원을 선호한다.

첫째 학교에서 보내 준 거예요. 택배로 우유지원 보내드려도 되겠냐고 그래서 택배로 딱 보내줬는데 둘째는 엄마 우유를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 가방에 가지고 왔다가 학원에 선생님 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해서 그래 잘 했다 그러긴 했는데 이왕이면 별거 아닌데 그런 상처가 받는 애들한테는 되게 클 거 같아요. (사례 14)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개네들도 지원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개네들도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다른 애들한테 내가 이렇다는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거 떼와라 하면 우리 아이도 그런 말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싫었다고 (사례 11)

처음에 너무 창피하게 생각 했었거든요. (중략) 복지사 분을 초창기 때 되게 잘 만나서 그분이 다 해줬어요. 어렵더라고요. 막막하고 그런데 누가 친절하게 도와주니까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빛 갠고(사례 3)



## 5장

# 정책 제언



## 5장 정책제언

본 연구는 세종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특히 한부모여성의 생활실태, 특히, 노동과 가족, 출산과 돌봄, 자녀양육과 교육, 건강과 정서 등 일상생활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통계와 정책의 잔여적 대상이나 범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한부모여성 심층면접은 세종지역 한부모여성의 구체적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다만 15명이라는 수적 제한과 이들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종시 한부모여성이 경험하는 일상을 드러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한부모가족, 한부모여성이 직면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어려움을 그들의 목소리로 담아냄으로써 연구의 현장성을 제공한다.

정책제언은 세종시의 여성한부모 가족 현황과 지원정책, 그리고 여성한부모의 심층면접에 대한 전문가 콜로키움과 정책자문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 1. 건강지원

#### ○ 신체적 건강지원

한부모여성의 경우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낮은 임금 때문에 2, 3개의 아르바이트를 겸하면서 가구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생활패턴이 장기화되면서,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 일의 중단과 복귀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한부모여성 및 가족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가 필요하다.

## ○ 정서적 건강지원

한부모여성들은 사별이나 이혼, 별거 과정에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다수다. 상당수 여성들이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경험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우울상태에 있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으며, 자살, 특히 자녀와 동반 자살을 생각하는 사례도 있어 심리지원이 절실하다. 한부모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준화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2. 복지서비스

### ○ 한부모여성을 위한 초기 종합 지원

사별 및 이혼 등의 이유로 갑자기 한부모가 된 여성의 경우,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댁과 경제적 문제나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도 있다. 한부모가 된 이후 여성들이 빠른 기간에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 ○ 중앙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접근성 제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부모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분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 자녀양육비 지원 대책

자녀양육비를 받게 될 경우, 이것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받더라도 일부 비율

만을 소득에 가산하여,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받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자녀양육비가 한부모여성가족의 경제적 소득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 주거지원방안 마련

한부모여성의 주거는 두 가지 문제로 수렴된다. 첫째는 경제적 문제다. 여유가 없는 한부모여성의 경우 갑작스레 주거를 상실했을 경우, 친정부모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친정부모나 친구의 도움이 없을 경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한부모여성들은 선호하는 임대아파트를 포기하고 임대료가 저렴하고 보증금이 없는 다가구나 외진 장소의 거주지를 선택하게 된다. 두 번째는 안전의 문제다. 경제적인 이유로 임대료가 싼 지역과 주거지를 마련하는 한부모여성들은 안전과 관련해 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장시간 노동을 해야하는 한부모여성의 경우 자녀들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부모여성가족들의 주거지에 안전 및 방법 관련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 공동주거

주거지가 마련되지 않은 한부모를 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거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새로 일하기센터의 양육기 한부모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녀양육의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자녀의 양육기는 지나간다는 차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육기 한부모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특화된 시간제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이 요구된다.

## ○ 지역에 기반한 자녀돌봄과 사회적 지원망

한부모의 경우, 자녀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따라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팀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한부모들이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확인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선을 넘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를 통해 임금수입이 증가되면 수급의 혜택이 감소하는 구조로 한부모여성들이 수급자서클에서 벗어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한부모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수급대상 선정 기준에서 소득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 ○ 한부모가족 자립보조금

한부모 여성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등 자립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컸다. 이를 위해 이들 여성은 일정기간 동안 자립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 현재 직업교육의 한계점과 개선 방안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직업교육보다, 한부모여성들이 원하는 분야의 직업교육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부모여성들이 장기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그것이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에 대한 적성검사에 대한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커리어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대한 심화 및 보수교육 체계 마련, 각 프로그램에 대한 한부모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에 대한 다각화도 필요하다. 한부모여성의 경우

보다 불안정노동에서 벗어나 정규직업을 얻기 위해 장기적 직업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한부모여성들이 가구수입과 자녀양육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 및 훈련에 시간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업훈련 및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직업교육비 및 훈련비, 이에 따른 교통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과 자녀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 한부모여성을 위한 정책 홍보

한부모여성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 및 서비스 기관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했다. 다양한 정책과 정보가 한부모여성에게 제공될 수 있는 통로를 일원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 ○ 결혼에 대한 가치관 교육

이혼을 한 한부모여성의 경우, 본인의 결혼을 원가족에서 멀어지기 위한 현실도피였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임신 등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등 결혼 전 탐색의 과정이 짧았거나 부모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결혼관이 성립되거나 성숙하기 이전에 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로 결혼하는 경우, 삶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결혼과정 및 부모 교육 등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 사회적 편견

한부모여성의 경우 한부모가 된 이후, 이웃들의 차별적 시선이나 편견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및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사회인식개선 정책도 필요하다.

### ○ 자조모임

타 지역에서는 한부모여성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소외나 고립을 극복하

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여성들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고, 오히려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온라인 모임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여성들이 스스로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3. 자녀

#### ○ 자녀의 독립을 시기에 대한 논의

한부모여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일 때 까지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실제 자녀가 성인이 된다고 해도 대학등록금이나 생활비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한부모 가족의 범주와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 한부모여성의 상황에 맞는 육아지원

임금노동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한부모여성의 경우, 전업주부처럼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한부모여성들이 자녀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자녀가 집에서 혼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및 지원연계를 통해 한부모여성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양육 및 돌봄 관련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 ○ 장애 자녀 돌봄

장애 자녀를 가진 한부모여성들의 경제적, 심리적 상황은 더 어렵다. 장애 자녀의 교육과 돌봄, 그리고 취업과 독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정



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 ○ 자녀 교육 지원

가족지원에서 한부모여성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한부모여성 대다수는 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을 자녀 사교육비에 지출하고 있다. 방과 후 교육에 대한 바우처제도도 있지만, 한부모여성들은 사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선호하고 만족도가 높은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 ○ 자녀를 위한 상담치료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만큼 한부모 자녀들도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정서적 취약계층인 한부모(조손, 다문화 등) 자녀들에 대한 상담지원을 교육청과 함께 정책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 ○ 지역아동센터의 홍보 및 접근성 향상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한부모여성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접근성이 원활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부모 자녀에 대한 지원 통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우진(2014), 한국 빈곤문제의 동태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강창현(2016), 한부모여성의 건강불평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0권 제4호, 297-319.
- 김승권(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제 40집 2호, 189-226.
- 노혜진(2012), 빈곤의 여성화 접근방식의 전환, 여성연구, 통권제83호, 241-273.
- 데이비드 모건(2012), 가족의 탐구, 안호용 옮김
- 류유선(2015), “가구화과정에서 나타난 미등록이주여성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박영신(2014), 한부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지원 사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현정·이기연(2015) 저소득 한부모 자녀의 삶과 발달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1권 제2호, 105-139.
- 변수정(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비혼동거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여성가족재단(2010),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2016), 2016 세종통계연보
- 송미영(2015),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추진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양옥경(2006), 가족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여성가족부(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오혜인(2013), 근로 빈곤 한부모 가구의 수급잔존에 관한 근거이론연구-남성한부모와 여성한부모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6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박혜경(2012), 7장 애정과 투쟁의 장소로서의 가족, 이재경외(2012), 여성학
- 이재경, 조영미, 민가영, 박홍주, 이박혜경, 이은아(2012) 여성학, 미래M&B
-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또하나의문화
- 이정빈(2013), 한부모여성의 부모역할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8권 제4호, 499-532.
- 이현심·한규철·전기복(2013), 한부모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제3호, 174-183.
- 임성은(2010), 영국과 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보건복지포럼, 통권제

161호, 83-103

정혜숙(2015), 빈곤 여성 한부모 자활 경험의 재구성-자활, 복지의존, 일의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4호, 251-277.

조보라(2007), 탈빈곤정책 분석연구: 젠더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4), 충청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12), 충청남도 비혼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통계청(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Collins, Jordan, and Coleman(2007),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회 역자, 가족복지실천론, 나눔의 집

허미영(2006),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계기와 가족의 역할,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235-262.

